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2021-19

정책연구

A Consumption Attributable to Tourism
Activities and Contribution of it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 of Government

김희수
박기백
빈기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A Consumption Attributable to Tourism Activities
and Contribution of it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 of Government

김희수·박기백·빈기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연구개요

1. 관광소비의 소비촉진 효과

가. 분석 목적 및 방법

- 여행 소비 촉진을 하면 여행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여행소비가 다른 항목의 소비도 촉진해서 전체 소비가 단기적으로라도 증가하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여행을 통한 소비자의 소비심리 변화이다. 소득의 변화가 없이도 여행을 통한 소비 심리의 변화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다른 소비항목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여행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체 소비지출도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관광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항목과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자료 기간이 분기별 자료이고 선행관계, 시차를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분석을 이용한다. 회귀분석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대입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분석 결과

1)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관광소비가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벡터자기회귀모형에서 원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 관광소비2(음식, 숙박), 관광외 소비 모두 서로 상호간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

-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관광소비2(음식 및 숙박 서비스)가 관광외 소비에 그랜저 인과 하는데 그 역의 관계는 비유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관광소비2가 관광외소비에 선행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 관광소비2(음식점, 숙박) 모두 관광외 소비에 매우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광소비2(음식점, 숙박)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 시차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관광소비1의 영향은 동기간뿐만 아니라, 1기와 2기의 시차를 두고 관광외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관광소비2는 동기간과 1기의 시차를 두고 관광외 소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기의 영향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2)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로그 수준 변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당기, 전기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모두 국내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의 1% 증가시 동기간 국내 소비지출은 약 0.0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로그 차분한 증가율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당기, 전기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이 모두 국내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의 연도별 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소비지출의 연도별 증가율이 0.0376% 포인트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광의 세수 기여도

가. 추계 의도 및 방법

- 관광소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목은 다양하다. 소득세, 법인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에도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사실상 세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관광소비가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관광소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여 부가가치 창출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각종 세금 징수실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 규모를 세목별로 추정하였다. 한편 산업연관표 외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추정을 법인세, 간접세 및 지방세 등에서 병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전체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관광소비가 발생할 경우 세수로 환수되는 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세수 기여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분석 결과

- 추계 결과, 내국인 관광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세가 약 8천억원, 사업소득세가 약 3천억원, 사회보험료 약 1.4조원, 법인세 약 1.5조원, 간접세 약 3.7조원 등 전체적으로 약 7.8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발생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관광소비의 경우는 약 3,039 백만 달러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소비가 주는 세수 효과를 모두 합하면 약 10.8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국내 세수 환수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내국인 관광소비가 약 43.1조원이고, 그에 따른 세수 수입이 약 7.8조원이므로 국내 관광 소비의 약 18%는 세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세수 추계 종합

구분	내국인 관광 부문 (10억원)	외국인 관광 부문 (백만 달러)
근로소득세	808.9	332.5
사업소득세	341.5	138.3
사회보험료	1,437.9	590.4
법인세	1,484.4	609.5
간접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3,706.6 (1,480.2)	1,369.0 (607.7)
합계	7,779.3	3,039.7

-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세목별 전체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관광지출에 따른 조세 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볼 때는 2.86%로 약간 낮아진다.
- 직접세의 일부와 관세 등이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비중은 전체 세수 수입의 약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관광관련 세수 규모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2〉 세수 기여도 추정 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내국인 관광 소비 관련 조세수입	외국인 관광 소비 관련 조세수입	관광소비 관련 조세 수입 합계	전체 조세 징수 결정액	비중(%)
근로소득세	808.9	333.5	1,142.4	39,327.9	2.90
사업소득세	341.5	138.7	480.2	21,347.7	2.25
사회보험료	1,437.9	592.2	2,030.1	64,400.0	3.15
법인세	1,484.4	611.3	2,095.7	72,314.8	2.90
간접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3,706.6 (1,480.2)	1,373.1 (609.5)	5,079.7 (2,089.7)	174,280.5 (70,009)	2.91
합계	7,779.3	3,048.8	10,828.1	371,670.9	2.91

3. 연구결과 활용 및 통계 개선

가. 연구결과의 활용

- 본 연구는 관광이 소비 촉진과 세수 증가에 어떻게 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분석 결과는 관광의 기능,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행 소비쿠폰, 여행바우처 등 여행 소비 촉진 관련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 분석방법의 설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여행 소비 자체의 증가 외에도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전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몇몇 관련 통계, 분석 수치 등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세수 기여도와 세수 환수 효과는 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조세 당국을 설득하는데 주요 근거 자료가 된다. 아직도 관광부문에 조세 감면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관광산업의 세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된다면 조세 감면 도입의 타당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계 개선

- 국민여행조사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는 연도별로만 발표되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구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른 외부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표 주기와 자료 형식을 일치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가 분기별로 발표되어야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 관광사업자조사에서는 사업체 운영 현황에서 조세와 부담금 납부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주요 조사항목이 될 수 있고, 부담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조사항목이 될 수 있다.

4. 정책 발굴 및 고려사항

가. 관광 소비 촉진 관련

- 여행적금에서의 할인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행적금 시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행적금에서는 만기에 여행 쿠폰을 발행하며,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도 있고, 제휴사 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할인 대상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 할인, 공공부문에서 기획한 콘서트 티켓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여행적금의 혜택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통합되어 있어서 여행활동의 선택 비율이 저조한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서구입이나 영화, 공연 등 일부 문화 항목에 대한 쓸림현상이 심하다. 당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예전의 형태로 여행이용권 사업만을 독립시켜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서 다양한 용도를 제시하여 도서문화상품권 구입이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관광상품권의 경우에는 모호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개정을 통해 관광 용도의 지출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놓아야 한다.
 - 관광활동비의 범주 설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숙박 비용, 여행상품구입 비용 등으로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관광상품권의 구입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조세 감면 관련

-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 종합휴양업종의 재산세와 취득세 증과세율 적용, 관광업종 부동산 과다법인의 양도소득세 증과 등에서 감면 요구가 높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세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사용액 3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기도서구입비, 공연비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에 숙박비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 그런데 최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도입 반대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적용 대상 및 기준을 달리하여 효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고, 도서구입비, 공연비와는 별도로 구분하는 가운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현재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환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호텔이 많지 않아서 효과는 영세율 적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전 환급이 아닌 사후 환급이므로 숙박객 중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만 받게 된다. 재화가 아닌 용역에 대해 사전 면세가 아닌 사후환급을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사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줘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후 환급이 아닌 예전과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 방법	5
관광 소비지출 특성 분석	9
제2장	9
제1절 관광 소비지출 현황	11
1. 관광 소비지출 추세	11
2. 자료출처별 소비지출 동향	14
제2절 일반 소비지출 검토	22
1. 이론적 검토	22
2. 소비지출 변화 동향	26
제3절 관광 소비지출 검토	28
1. 연구 동향	28
2. 관광 소비성향 논의	30
3. 관광소비 촉진 사례	32
관광 소비지출의 효과 분석	35
제3장	35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37
1. 분석 목적	37
2. 방법 및 자료	38

제2절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40
1. 시계열적 특성 검토	40
2. 모형 설정 및 자료 변환	42
3. 분석 결과	44
제3절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49
1. 자료 검토 및 모형 설정	49
2. 분석 결과	52
제4장 여행 소비성향 설문 분석	55
제1절 조사 개요	57
1. 조사 대상 및 방법	57
2. 설문 구성	5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61
1. 여행횟수, 소득대비 비중	61
2. 여행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62
3. 여행 소비지출 성향	63
4. 여행활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64
5. 소비쿠폰, 과소비에 관한 의견	66
제3절 심층 분석	68
1. 소비성향 분류	68
2. 요인간 상관분석	70
제5장 관광관련 세수 추계	73
제1절 기초통계 검토	75
1. 국세청, 국세통계	75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78
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82
4. 산업별 비교	84
제2절 세수 규모 추정	88
1. 추정 방법	88
2.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89
3. 법인세	96

4. 간접세 및 지방세	98
5. 세수 기여도 추정	101
제3절 관광소비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104
1. 분석 모형 설정	104
2. 분석 결과	105
제6장 결론 및 제언	113
제1절 결 론	115
1. 소비촉진 효과	115
2. 세수 기여도	116
제2절 정책 제언	117
1. 연구결과 활용 및 통계 개선	117
2. 정책 발굴 및 고려사항	119
 참고문헌 /	123
 ABSTRACT /	125
 부록: 설문지 / 설문결과(교차분석표) /	127

표 목차

〈표 1-1〉 연구 수행 절차	7
〈표 2-1〉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	11
〈표 2-2〉 국민국내여행지출액(국민여행실태조사)	12
〈표 2-3〉 외래관광객 지출액 추세	13
〈표 2-4〉 여행지 구매 항목별 지출비용	14
〈표 2-5〉 방한 외국인 소비지출(1인평균 지출경비)	14
〈표 2-6〉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규모	15
〈표 2-7〉 국내 가게 최종소비지출	16
〈표 2-9〉 주요 소비항목간 상관분석 결과	18
〈표 2-1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0
〈표 2-11〉 단체여행비, 숙박비의 포함 내용	20
〈표 2-12〉 관광 연관 상품의 민간소비지출	21
〈표 2-13〉 소비지출 결정요인	28
〈표 3-1〉 국민 국내 여행지출액과 소비항목간 상관분석 결과	39
〈표 3-2〉 런 검정 결과	40
〈표 3-3〉 음식 및 숙박의 자기상관	40
〈표 3-4〉 오락, 스포츠 및 문화의 자기상관	41
〈표 3-5〉 교차상관분석 결과	41
〈표 3-6〉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원변수)	44
〈표 3-7〉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로그 수준 변수)	45
〈표 3-8〉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46
〈표 3-9〉 회귀분석 모형 I 의 추정 결과	46
〈표 3-10〉 회귀분석 모형 II 의 추정 결과	48
〈표 3-11〉 분석 이용자료	49
〈표 3-12〉 로그 수준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2
〈표 3-13〉 로그 차분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3
〈표 4-1〉 여행 소비지출 성향 설문조사 대상	57

〈표 4-2〉 응답자 분포	58
〈표 4-3〉 조사 내용	60
〈표 4-4〉 설명된 총분산	68
〈표 4-5〉 요인분석 결과(rotated component matrix)	69
〈표 4-6〉 상관계수(소비지출 유형과 여행횟수)	70
〈표 4-7〉 상관계수(여행심리 변화와 소비지출)	71
〈표 5-1〉 법인세 징수 현황(2020년)	75
〈표 5-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020년)	76
〈표 5-3〉 숙박음식점업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현황(2019년)	76
〈표 5-4〉 우리나라 조세체계	77
〈표 5-5〉 관광 관련 업종의 법인세 비용(합계)	79
〈표 5-6〉 관광 관련 업종의 법인세 비용(평균)	79
〈표 5-7〉 관광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 비율	80
〈표 5-8〉 관광 관련 업종의 판매및관리비 중 세금과공과(합계)	81
〈표 5-9〉 관광 관련 업종의 세금과공과(평균)	81
〈표 5-10〉 관광 연관 상품의 생산세 현황	83
〈표 5-11〉 산업연관표의 형태	84
〈표 5-12〉 산업별 평균실효세율 비교	85
〈표 5-13〉 산업별 간접세 비율 (영업잉여 및 부가가치 기준)	87
〈표 5-14〉 2018년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사용부문)	90
〈표 5-15〉 평균소득세율(근로소득)	92
〈표 5-16〉 근로소득세 효과	93
〈표 5-17〉 종합소득세 소득별 구성	94
〈표 5-18〉 평균소득세율 (종합소득)	94
〈표 5-19〉 종합소득세 효과	95
〈표 5-20〉 사회보험료 효과	95
〈표 5-21〉 법인세수 효과	97
〈표 5-22〉 숙박업 등의 법인세비용 비중	98
〈표 5-23〉 간접세 효과	99
〈표 5-24〉 부가가치세 효과	99
〈표 5-25〉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 비율	100
〈표 5-26〉 세수 추계 종합	101
〈표 5-27〉 세수 기여도 추정 결과	102

〈표 5-28〉 업태별 법인세 징수 비중(2018년)	103
〈표 5-29〉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105
〈표 5-30〉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106
〈표 5-31〉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107
〈표 5-32〉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108
〈표 5-33〉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109
〈표 5-34〉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110
〈표 5-35〉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110

그림 목차

[그림 2-1]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	11
[그림 2-2] 소비항목별 연도별 추세 1	17
[그림 2-3] 소비항목별 연도별 추세 2	18
[그림 2-4] 국내 소비지출 대비 추세	19
[그림 2-5] 피셔 모형의 소비 선택 결과	26
[그림 2-6] 여행활동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2
[그림 3-1] 국민국내여행지출과 국내소비지출의 시계열 추이	50
[그림 3-2] 국민국내여행지출과 국내소비지출의 산포도	51
[그림 4-1] (최근 3개월) 국내 여행 횟수	61
[그림 4-2] 여행 관련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62
[그림 4-3] 여행 경험 후 심리변화	62
[그림 4-4] 여행 관련 소비지출 성향	63
[그림 4-5] 국내 여행활동이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64
[그림 4-6] 국내 여행활동이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65
[그림 4-7]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많아지면 함께 늘어날 소비항목	65
[그림 4-8] 여행소비쿠폰 제공시 지출에의 영향	66
[그림 4-9] 여행활동 증가로 인한 과소비 대처법	67
[그림 4-10] Scree Chart	69
[그림 5-1] 소득금액 계산구조	90
[그림 5-2] 법인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96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마다 경제성장 차원에서 소비 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저성장,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소비지출 증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관광산업도 소비지출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내수 촉진과 전체 소비지출 관점에서 관광소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소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수준이다. 외래관광객조사, 국민여행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에 의해 관광소비 지출액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만, 관광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른 소비유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활동, 관광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증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관광산업의 세수 효과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산업의 중요성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개의 세부업종과 관련이 있으므로 하나의 산업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세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목별로 규모를 추정하여 전체적인 세수 규모를 측정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산업연관분석의 조세 승수에 의해 간접세는 일부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래관광객, 국내관광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매출 증가,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따라 관광이 국가의 세수 증대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세수 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정 자

료 생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세목의 경우에는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실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규모를 추정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관광 소비지출이 일반 소비지출과 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 관계를 입증하는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외부에 관광산업의 기능, 기여도를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가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하는 것은 차후에도 관광산업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광활동이 소비지출과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론은 향후에도 관련 자료 산출이 필요할 때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 소비지출은 단독으로 분석할 때 보다 전체적인 소비지출과 다른 소비지출 항목과 비교, 분석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질 때 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행 소비지출 자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관광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관광활동의 소비 촉진 효과분석과 관광산업의 세금 납부 규모,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관광활동의 소비 촉진 효과와 관련해서는 관광 소비지출 현황 및 특성 분석, 관광 소비지출의 소비촉진 효과분석,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로 한다.

관광산업의 세금 납부 규모와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 산출과 관련해서는 관광분야의 조세 납부 관련 통계 분석, 관광 소비지출에 따른 조세 규모 및 비중 추정을 수행하기로 한다. 또한 분석 결과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제시를 포함한다.

2. 연구 방법

2-1. 소비지출 분석

먼저 분석에 앞서 국민여행조사의 국내여행지출액, 한국은행의 가계최종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추세를 조사하고, 산업연관표상의 상품별 소비에서 관광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 소비지출의 소비 촉진 효과는 주로 회귀분석과 벡터자기회귀모형(VAR)에 의해 분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고, 선행관계, 시차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기로 한다. 계량분석 결과의 모호함, 부족함 등은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하기로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여행시 소비심리 변화, 여행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등 소비지출의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로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여행이 소비촉진 효과를 갖을 것으로 보는 논리적 근거인 여행활동을 통한 심리적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시 소비심리 변화와 소비지출 증가의 관련성, 여행 소비지출 성향과 여행횟수의 관련성 등을 추가 분석하기로 한다.

2-2. 세수 추계

관광 소비지출과 관련된 세수규모는 세목별로 파악하기로 한다. 세목별로 영향 변수, 징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세목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추정하기로 한다. 관광 소비지출로 인한 세수 규모는 기본적으로 관광 소비지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추정하되, GDP 대비 결정세액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보완적으로 기업경영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을 병행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등이다.

한편 세수 규모 추계와 별개로 관광 소비지출이 전체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가 세금의 대표적인 항목인데다 기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세금이므로 관광 소비지출이 기업의 수입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법인세수 증가에 기여하는지가 계량적으로 입증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표 1-1〉 연구 수행 절차

구성	연구 흐름	세부 연구 과정	연구 고려사항
STEP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설정	1. 소비지출, 세수 관련 이슈 제기 2. 연구 문제 제기 3. 연구 방법 및 구성 설정	- 소비지출, 세수와 관련된 배경과 분석 대상 명확화
↓			
STEP 2	관광 소비지출 특성 및 추세 분석	1. 항목별 특성 분석 2. 추세 분석	- 소비지출 조사 원자료 검토 - 분석 방법론 검토
↓ * 전문가 회의			
STEP 3	소비 촉진 효과 분석	1. 관광 소비지출의 타 소비지출에의 영향 분석 2. 관광 소비지출의 전체 소비지출에의 영향 분석	-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 고찰 - 계량분석 방법 검토
↓			
STEP 4	설문 조사	- 일반인 대상 - 관광 소비지출의 성격 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방법 검토
↓ * 전문가 회의			
STEP 5	세수 추계 분석	- 세목별 관광 소비지출로 인한 세수 규모 추정	
↓			
STEP 6	정책과제 및 결론	분석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시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2장

관광 소비지출 특성 분석

제1절 관광 소비지출 현황

1. 관광 소비지출 추세

1-1. 국내여행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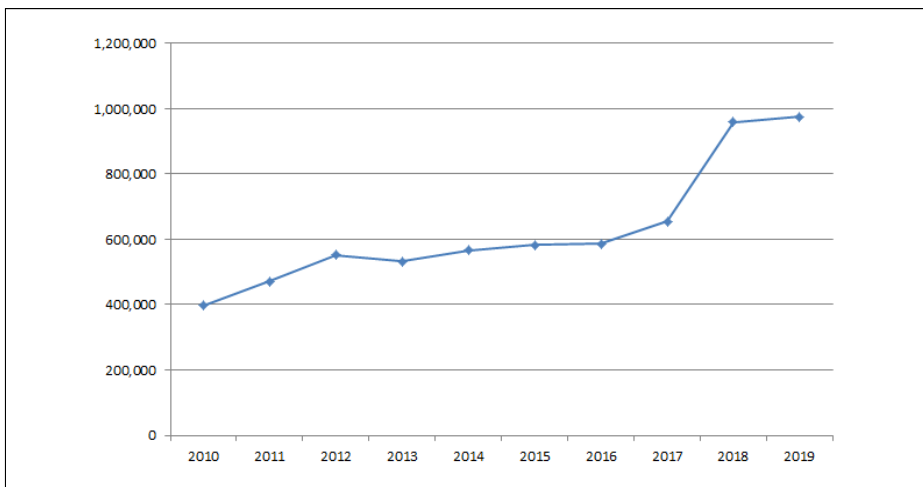
국내 여행 참가자수 및 국내여행 이동총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여행 지출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012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

(단위: 천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여행 지출액	396	470	551	531	565	582	586	655	959	976

[그림 2-1]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데, 이것은 조사 방식,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조사와 달리 출발전 지출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출항목의 구분에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2019년)의 조사결과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1인당 국내여행지출액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내여행지출총액으로 확대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는 관광 소비지출 추정에는 가장 적합한 자료이므로 다른 소비지출 조사 자료와 함께 사용하면 관광 소비지출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2〉 국민국내여행지출액(국민여행실태조사)

연도	1인당 지출액(원) : 응답자 기준	지출 총액(백만원)
2001	332,540	12,491,341
2002	-	-
2003	-	-
2004	366,543	14,208,205
2005	370,954	14,511,123
2006	406,871	16,081,318
2007	393,996	15,757,038
2008	387,886	15,711,047
2009	365,124	16,364,535
2010	396,741	16,859,774
2011	470,727	20,205,430
2012	551,457	23,891,080
2013	531,576	23,234,315
2014	565,850	24,845,762
2015	582,770	25,395,649
2016	586,495	25,748,487
2017	655,240	29,455,943
2018	959,000	43,133,000
2019	976,000	44,183,000

주: 2004년 이전에는 국민여행실태조사가 연단위 조사가 아니어서 2002년~2004년은 조사결과가 없음

1-2. 방한 외국인 지출

외래관광객의 지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년 대비 부(-)의 성장률을 보이는 시기도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정(+)의 성장률을 보이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1995년, 1998년, 2008년, 2018년 등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계단식의 성장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2015년, 2017년, 2020년 같이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는 사례도 보인다. 이 사례는 공통적으로 SARS,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로 볼 수 있다. 1인당평균소비액은 증가추세라기 보다는 특정 범위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이상수치(outlier)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3〉 외래관광객 지출액 추세

구분	계(US\$1,000)	성장률(%)	1인당평균소비액(US\$)
1990	3,161,100	-4.5	1,068
1991	2,855,700	-9.7	893
1992	2,689,500	-5.8	492
1993	2,929,500	8.9	525
1994	3,316,500	13.2	701
1995	5,060,200	52.6	1,350
1996	4,855,400	-4.0	1,320
1997	4,710,200	-3.0	1,208
1998	6,865,400	45.8	1,618
1999	6,801,900	-0.9	1,462
2000	6,811,300	0.1	1,282
2001	6,370,700	-6.5	1,240
2002	5,915,000	-7.2	1,109
2003	5,339,900	-9.7	1,128
2004	6,049,300	13.3	1,045
2005	5,785,100	-4.4	966
2006	5,689,000	-1.7	924
2007	6,057,600	6.5	939
2008	9,680,500	59.8	1,405
2009	9,737,000	0.6	1,246
2010	10,225,400	5.0	1,162
2011	12,233,900	19.6	1,249
2012	13,201,100	7.9	1,185
2013	14,288,400	8.2	1,174
2014	17,335,900	21.3	1,221
2015	14,675,800	-15.3	1,109
2016	16,753,900	14.2	972
2017	13,263,900	-20.8	995
2018	18,461,800	39.2	1,203
2019	20,744,900	12.4	1,185
2020	10,436,200	-49.7	4,143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2. 자료출처별 소비지출 동향

2-1. 국민여행조사

국민여행조사에서는 국내여행지출액이 월별,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구분 등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문 문항은 2017년 이전에는 “이번 가족여행에서 귀댁이 지출하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다녀오신 여행지 및 여행지로의 이동 과정, 귀가 과정에서 지출하신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로 변경되었다.

2019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지출액 총량은 44,183 십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38,015 십억원, 기타여행은 6,168 십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여행지출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음식점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통비, 쇼핑비, 숙박비, 여행활동비, 여행모임회비, 여행상품구입비 순으로 나타난다.

〈표 2-4〉 여행지 구매 항목별 지출비용

(단위: %)

구분	음식점비	교통비	쇼핑비	숙박비	여행 활동비	여행 모임회비	여행상품 구입비	기타
2018년	39.2	26.7	9.4	11.0	6.4	5.1	1.9	0.2
2019년	40.5	26.7	11.3	9.9	5.8	3.0	2.4	0.5

2-2. 외래관광객조사

외래관광객 여행소비에서 1인평균 지출경비는 월별, 거주국별 등으로 구분되어 발표되고 있다. 월별로는 큰 편차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 평균 지출경비는 개별여행객, 단체여행객, 에어텔 등 방문형태별로도 나누어서 발표되고 있다. 설문 문항은 “지출하신 총 경비를 항목별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숙박비, 쇼핑비, 식음료비, 교통비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표 2-5〉 방한 외국인 소비지출(1인평균 지출경비)

(단위: US\$)

구분	2018년	2019년
1월	1,423.3	1,158.9
2월	1,515.8	1,382.7
3월	1,397.5	1,254.7

구분	2018년	2019년
4월	1,360.5	1,177.7
5월	1,323.6	1,170.7
6월	1,340.8	1,188.8
7월	1,291.4	1,309.0
8월	1,246.7	1,191.4
9월	1,335.4	1,326.5
10월	1,370.8	1,228.5
11월	1,229.3	1,261.0
12월	1,331.4	1,235.8
평균	1,342.4	1,239.2

2-3. TSA의 관광소비지출 규모 추정

관광 소비지출의 규모에 대한 언급은 관광위성계정(TSA) 분석 결과에도 나타난다. 관광위성계정에서는 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조사 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를 추가하여 항목별 자료를 생산한다. 다만 연도별로 연속적으로 집계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위성계정 분석 결과에 포함된 연도만 알 수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단절된 자료이다.

2005년, 2018년, 2002년의 연구용역에 나타나는 결과만을 취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연도별 연속성 측면에서는 단절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국인, 외국인 모두 관광 소비지출 측면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항목명	2004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내국인 국내 여행 (국민여행실태조사)	14,208,206	23,234,315	24,845,762	25,395,649	30,041,000
해외여행시 국내항공 이용 금액 + 해외 여행을 위한 사전 지출 비용	1,973,649 + 2,567,820	9,430,227	11,842,185	12,699,855	12,905,584
소계	18,749,675	32,664,542	36,687,947	38,095,504	42,946,584
외래객 국내여행	9,002,534	22,051,050	24,596,931	22,353,478	30,467,398
내국인 해외여행	12,168,819	22,066,699	23,604,105	27,400,209	23,557,414

주: 소계에는 내국인 국내여행 비용에 “해외여행시 국내항공이용 금액+ 해외여행을 위한 사전지출 비용”이 합쳐진 것임

- 자료: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위성계정 구축방안연구』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관광위성계정(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2-4.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가계최종소비지출 자료는 1년 동안 거주한 가계가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를 기초자료로 하여 추계한 것이다. 이는 가계동향, 서비스업 관련 통계, 신용카드 자료, 생산GRDP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치를 산출하고, 조사 결과는 연도별, 분기별로 구분되어 발표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는 1970년부터 시계열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자료구조를 보면, 국내 소비지출에는 국민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12개의 소비항목에 대한 통계가 담겨 있고,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비거주자(외국인) 국내소비지출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소비의 범주를 정확히 포괄하는 특정 소비항목을 찾을 수는 없지만, 관광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비항목보다도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항목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7〉 국내 가계 최종소비지출

(단위: 십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소비지출	764,299.9	790,430.8	818,907.9	857,075.4	881,493.6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87,059.4	91,244.2	94,781.8	98,237.8	100,304.2
주류 및 담배	15,075.9	16,501.3	16,526.4	16,459.2	16,305.1
의류 및 신발	50,014.7	51,661.0	51,829.3	53,467.5	53,561.4
임대료 및 수도광열	138,367.8	141,940.6	145,976.4	151,314.6	155,161.0
가계시설 및 운영	20,240.3	22,135.9	24,007.3	25,919.4	26,560.5
의료보건	36,640.4	39,496.1	41,419.4	44,359.0	48,765.4
교통	84,373.6	86,138.2	88,826.6	93,281.6	93,615.8
정보 통신	40,872.3	44,325.1	46,264.9	46,234.9	45,631.4
오락, 스포츠 및 문화	56,925.5	56,378.9	58,361.9	62,408.1	64,873.7
교육 서비스	44,752.5	44,577.5	45,658.1	46,562.6	48,275.7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77,688.1	81,335.2	84,414.5	88,161.7	92,613.0
기타	112,289.4	114,696.8	120,841.2	130,668.8	135,826.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주자 국외 소비지출	27,405.5	30,279.5	34,598.6	37,486.0	36,717.2
(공제)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14,637.2	17,278.4	12,828.6	17,133.2	21,059.6
가계최종소비지출	777,068.1	803,431.8	840,677.9	877,428.2	897,1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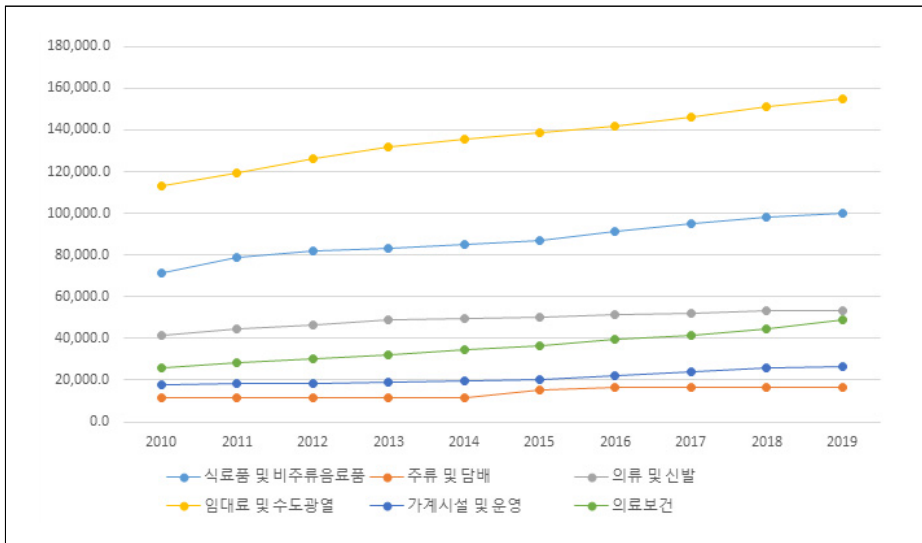
주: 1. 표안의 수치는 원자료, 명목수치

2. 기타소비에는 개인 간호서비스, 일상용품, 사회적 보호, 보험,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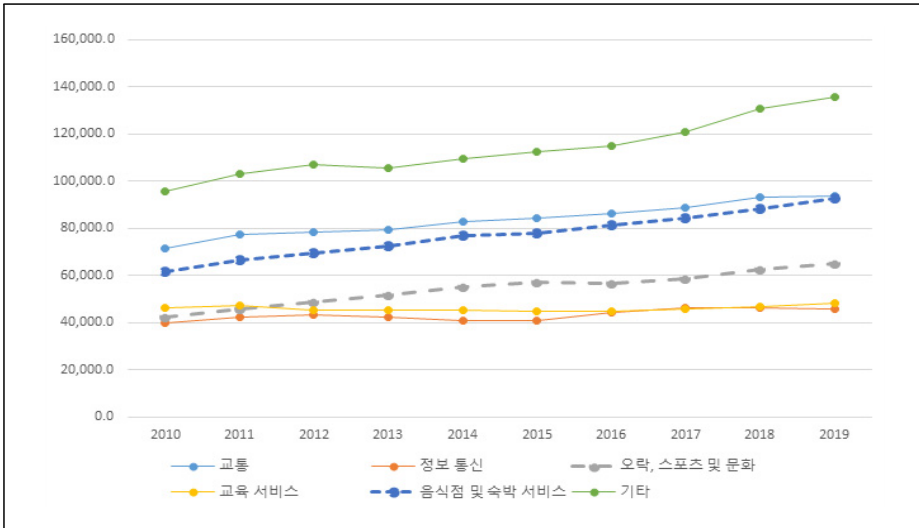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최종소비지출)

연도별 자료만으로 국내 소비지출의 소비항목별 추이를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증가하면서도 연도별로는 변동성이 낮은 소비지출의 특징이 나타난다. 소비지출은 다른 변수와는 달리 변동성이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항목의 비중이 연도별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항목은 거의 없다. 항목에 따라 어떤 항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항목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항목은 단순하게는 연간 수입하에서 선택적으로 결정되므로 항목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 2-2] 소비항목별 연도별 추세 1



[그림 2-3] 소비항목별 연도별 추세 2



위의 그래프를 볼 때,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항목이 임대료 및 수도광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교통 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관계수를 보더라도 이들 소비항목간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9〉 주요 소비항목간 상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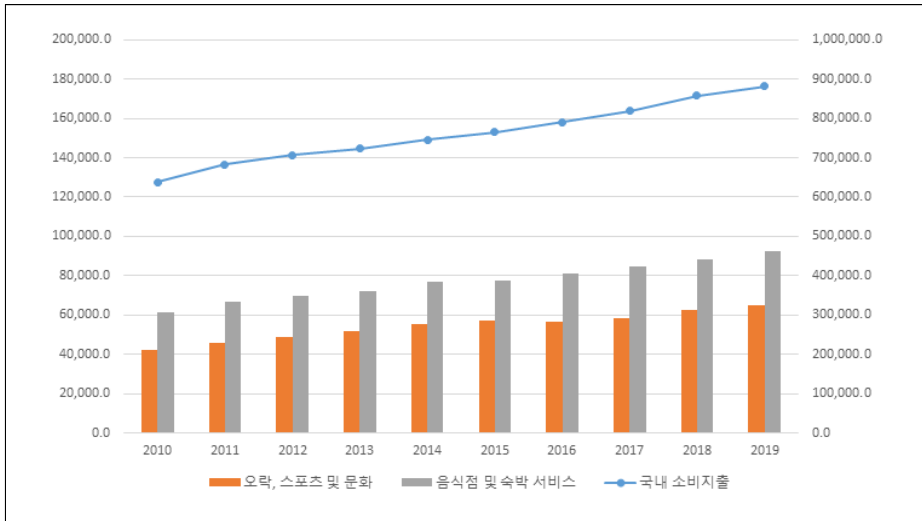
구분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임대료 및 수도광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교통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	.997*** (.000)	.985*** (.000)	.982*** (.000)	.993*** (.000)
오락, 스포츠 및 문화		1	.979*** (.000)	.974*** (.000)	.987*** (.000)
임대료 및 수도광열			1	.981*** (.000)	.991*** (.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1	.987*** (.000)
교통					1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상관분석은 1970~2020년까지의 분기별 자료 204개 이용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와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항목에 대해서만 국내 소비지출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국내 소비지출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연도별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국내 소비지출 대비 추세



2-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가구가 작성한 가계부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품목 등을 매월 직접 조사하며, 분기별 간격으로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를 공표한다.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월단위로 지출액을 조사하여 분기별로 집계, 표시하여 발표한다.

조사표본에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오다가, 2017년부터 1인 이상 가구도 포함하여 조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였다. 자료는 가구원 지출총액이 아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으로 나타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과 동일하게 12개의 소비항목으로 분류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표 2-10〉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비지출(계)	2,556,823	2,537,641	2,456,678
식료품·비주류음료	360,273	366,672	332,558
주류·담배	34,813	35,028	35,802
의류·신발	159,018	152,206	138,180
주거·수도·광열	282,999	285,461	276,58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2,030	117,115	115,323
보건	181,796	191,120	202,279
교통	369,150	348,808	295,974
통신	137,838	134,107	123,006
오락·문화	174,693	191,772	180,301
교육	188,343	173,372	204,775
음식·숙박	354,158	349,699	345,710
기타상품·서비스	201,712	192,282	206,182

주: 명목, 1인이상 가구

하지만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과는 달리 12개의 소비항목 분류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분화된 세부 소비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관광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음식·숙박비는 식사비, 숙박비로 구분하여 통계 파악이 가능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음식비(식사비)는 월 333,552원, 숙박비는 월 12,158원으로 나타난다. 오락·문화에서는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단체여행비 등 여행관련 소비 지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월 5,713원, 단체여행비 월 48,177원으로 나타난다.

〈표 2-11〉 단체여행비, 숙박비의 포함 내용

항목명	내용
숙박비	-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방갈로 포함 - 찜질방, 사우나(취침)은 제외
단체여행비	단체여행비, 성지순례비, 해외원정비

자료: 통계청(2008), 『가계수지항목분류 해설』

2-6. 산업연관표상의 소비지출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산업연관표에서도 소비지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산업연관표 총거래표에 민간소비지출 항목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상품 기본부문별로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현황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민간소비지출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을 말한다. 각 품목에 따라 인적 추계 방법인 가계조사법과 물적 추계 방법인 재화흐름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산업연관표는 상품분류가 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운송서비스, 숙박,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 오락서비스 등은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각 상품의 민간소비지출은 연도별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락서비스, 숙박의 민간소비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2〉 관광 연관 상품의 민간소비지출

(단위: 백만원)

상품	민간소비지출		
	2016년	2017년	2018년
항공운송서비스(5500)	3,706,110	3,970,840	3,957,603
숙박(5820)	9,196,188	8,996,263	9,443,489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7904)	4,600,524	5,397,957	6,042,150
오락서비스(8002)	15,265,609	15,685,353	16,244,974

주: 괄호는 상품분류 번호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2017 연장표, 2018 연장표)

제2절 일반 소비지출 검토

1. 이론적 검토

1-1. 개념 및 특성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은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 가운데 가계가 구입한 소비재의 총가치를 말한다. 총수요의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통 총수요(GDP)의 60%~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지출은 내구성 소비의 존재 때문에 소비와 개념적 차이가 생긴다. 비내구성 소비 지출은 구입 연도에 전부 소비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구성 소비 지출은 지출한 금액 전체가 모두 구입한 해에 소비된다고 볼 수는 없다(소비 \neq 소비지출).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감가상각된 부분 만큼만이 소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비지출은 노동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변수이다. 불경기에도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호경기가 되어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증가하지도 않는다. 침체기에도 많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회복기에도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의 대상이 대부분 기본 식료품과 필수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일정 소득하에서 한 비목의 소비를 늘리면 다른 비목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성격이 있다.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가 늘면 다른 품목의 소비는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소비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총액을 늘리거나 줄일 때, 각 지출항목을 일률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의 구성 또한 매우 활발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득과 물가변화에 따른 소비량, 나아가 소비지출액의 변화 양상은 소비 비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치재 소비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필수재 소비

는 비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날 경우 크게 증가하면서도 다른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과 같은 선택재는 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여행은 사치재적 성격이 강하여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2. 소비 대상의 구분

소비지출의 대상은 먼저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구재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화로 자동차, 텔레비전, 가구 등을 들 수 있다. 내구재는 대부분 고가 항목들로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10% 남짓 정도로 알려진다. 비내구재는 의류, 신발, 잡화 등 수명이 3년 미만인 제품들로서 이들은 대개 기호품 보다는 필수품에 가깝다.

이러한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구분은 획일적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다분히 편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령 의류는 상당 기간의 사용에 전될 수 있는 것이지만 비내구재로 분류된다. 내구재는 초기에 일시적 거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이후에는 소액의 유지비 이외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불량 때에는 구매를 삼가는 경향이 크며, 비내구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의 변동이 심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소비 상품은 필수재와 비필수재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보건비 등은 필수재로 볼 수 있으며, 외식비, 교양 오락 문화생활비, 여행비, 주류, 가구, 전자제품 등은 비필수재로 볼 수 있다. 비필수재는 소비 규모를 결정하는 소비자 재량이 필수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소비의 장소에 따라서는 외출형 소비, 재택형 소비, 기타형 소비 등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¹⁾. 외출형 소비로는 음식·숙박, 국외소비지출,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을 편의상 외출형 소비라 할 수 있다. 재택형 소비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가계시설 및 운영, 교육, 주류 및 담배, 임료 및 수동광열, 의료보건 등은 기타형 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1) 박종규(2009),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외출형 소비가 재택형 소비에 비해 가계소비 증가율에 기여도가 높으며 충격의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소비지출은 서로 대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외출형 소비는 다른 품목과의 대체관계가 크고, 다른 소비에 대한 충격의 지속기간도 긴 것으로 알려졌다.

1-3. 영향 요인 및 소비함수 이론

가. 영향 요인

소비지출은 소득, 재산, 물가수준, 이자율, 미래소득, 가계부채총액, 고용 사정, 장래 경기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거시 경제적 여건 외에도 기호와 취미, 소비자 선호의 변화, 새로운 상품의 등장, 정부정책 등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가계지출의 규모와 패턴 변화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가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가계는 구성 원수, 연령구조, 주거형태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출행위에 있어서 가계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비함수 이론

경제학에서는 소비는 소득의 함수로 보고 있는데,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소비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주요 가설로는 절대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평생소득가설, 영구소득가설 등을 들 수 있다.

거시경제 모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비함수는 $C=a+b*Y$ 로 표현된다. 여기서, C는 소비, Y는 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 a는 생존을 위한 최소 소비, b는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of consumption)이다. 이는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절대소득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소비함수라 할 수 있다.

케인즈 절대소득가설과 대비되는 가설로 ‘항상소득가설’이 있다. 이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소비가설로서, 소비는 일시적 소득 증가에 반응하지 않고, 영구적 소득 증가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항상소득이 증가할 때 비례적으로 소비는 증가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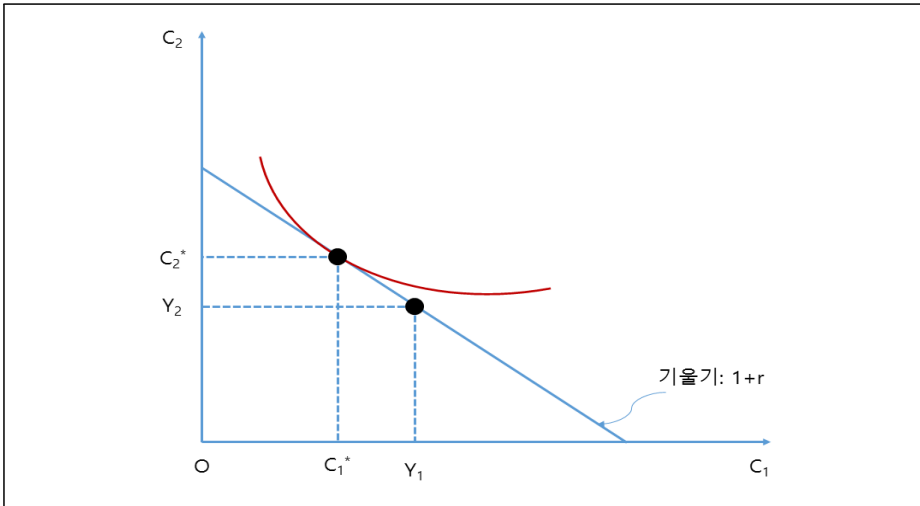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소비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소는 소득이다. 직관적으로 소득 재원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시장이 발달한 현대 경제에서는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그 재원을 차입한 후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소비에 대한 결정요인은 소득과 이자율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소비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이다. 소득은 소비에 양(+)의 영향을 금리는 소비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모형화한 것이 피셔(Irving Fisher)의 기간간 소비 선택 모형(Intertemporal Consumption Choice Model)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금리 상승시 현재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나은 결정이기 때문에 금리는 소비에 음(-)의 영향을 준다. 이 모형에서는 소비함수를 $C = C(Y, r)$ 로 설정한다. 여기서, C 는 소비, Y 는 소득, r 은 금리(이자율)이다.

피셔 모형에서 예산 제약은 $C_1 + \frac{C_2}{1+r} = Y_1 + \frac{Y_2}{1+r}$ 이고, 효용함수는 $U(C_1, C_2)$ 이다. 여기서 C_1 은 현재소비, C_2 는 미래소비, Y_1 은 현재소득, Y_2 는 미래소득, r 은 금리이다. 예산제약식은 소비의 현재가치와 소득의 현재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용함수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효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피셔 모형의 소비 선택 결과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최적 소비 선택은 현재소비 C_1^* , 미래소비 C_2^* 이다. [그림 2-5]에서 보면 현재소득은 Y_1 이므로 $Y_1 - C_1^*$ 는 현재시점의 저축이 된다. 저축으로 재원을 미래로 이전시키기 때문에 미래소비는 미래소득보다 큰 C_2^* 가 가능하다. 그림에서 보면, $C_2^* = Y_2 + (Y_1 - C_1^*) \cdot (1+r)$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피셔 모형의 소비 선택 결과



2. 소비지출 변화 동향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65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 9.2%이었고,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7%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4%~5%대로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2%~3%를 기록하고 있다²⁾. 가계지출 구조는 경제성장, 인구통계, 금융환경,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필수재의 소비지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선택적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1990년 이후 소비성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카드사태 전후에 등락을 보인 바 있으나 그 외에는 대체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민간소비는 대내외 충격에 민감히 반응하며 GDP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경향³⁾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시에는 소비자

2) 통계청(2019), 국가지표체계

3) 경제 소득 수준이 낮을 때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소비를 줄여 현재와 미래에 비슷한 금액을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들은 집 밖에서 쓰는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집 안에서 쓰는 재택형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소비지출 내역을 조정하였다. 이런 식의 지출내역 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사례로서 외환위기로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된 1997년 4/4분기와 2008년 2/4분기 중에만 관찰되는 현상이다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18년 17%로 감소한 반면, 음식·숙박 지출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에서 2018년 14%로 증가하였다. 오락·문화, 교통, 통신비 등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서비스화 추세가 진전되었고, 서비스 소비지출의 비중이 확대되었다⁵⁾.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 행태가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소비지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변화로 자녀의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교육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통신비의 증가이다. 점차적으로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 통신장치 및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주5일근무제, 소득의 증가 등은 국민들의 여가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점차적으로 여가를 중시하게 되면서 교통비와 음식문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부터 가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외환 위기 이후에는 급증세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계소비지출이 약간 줄어들고, 특히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 대면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박종규(2009),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5) 주소현, 차경욱, 김민정, 김소연(2020), 한국 가계의 지출구조 변화(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3권 4호

제3절 관광 소비지출 검토

1. 연구 동향

1-1. 결정요인

관광분야에서 소비지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주로 지출의 결정요인, 소비성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지출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는 관광 소비지출이 여행거리, 방문자의 소득, 만족도, 나이, 거주지, 방문목적, 동반유형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3〉 소비지출 결정요인

연구	소비지출 관련 요인
Agawal & Yochum(1999)	체류시간, 동반자수
Godbey & Graefe(1991)	사전방문경험, 친숙성/신기성 체험
Henthorne(2000)	체류시간, 사전방문경험
Leones et al.(1998)	숙박일수, 방문목적
Long & Perdue(1990)	방문목적, 사전방문경험, 만족도
Mok & Iverson(2000)	방문목적, 사전방문경험, 방문형태(개별/패키지)
고동우·부소용(2001)	체류시간, 방문목적, 사전방문경험
김선하·이희승·현미선(2005)	숙박여부, 방문목적, 접근성
김성섭·한학진(2007)	체류시간, 방문목적, 사전방문경험, 동반자수

외국 학계에서는 관광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 또는 연령 차이가 관광객의 소비지출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Bernini & Cracolici⁶⁾,

6) Bernini, C., & Cracolici, M. F.(2015), Demographic Change Tourism Expenditure & Life Cycle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7, 191-205

Yeaman et al.)⁷⁾. 하지만, 특정 지역 혹은 지역축제와 같은 특정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연구마다 적용대상이 달라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많다.

1-2. 소비성향

관광 소비성향 관련 연구들은 성향 파악과 유형 구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소비성향은 경제학에 나오는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성향 파악과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는 여가·관광 소비행동이 쾌락적 가치를 지향하며, 충동적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국섭(2009)은 골프 이벤트 방문객의 지출성향을 토빗모형(T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방문 전 계획 소비행동이 아니라 방문 후 무계획적이거나 충동적인 구매 성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⁸⁾. 이태희·배은성(2009)은 관광객이 가지는 신기성, 감각 추구성, 쾌락적 쇼핑성향이 관광쇼핑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⁹⁾.

Tobit 모형은 파라미터의 한계효과를 분해함으로써 수요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가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Tobit 모형 분석결과, 시장참여 결정 효과가 조건부 소비량효과에 비해 시장반응을 설명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면 이 때의 소비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성격이 약하고 비계획적 또는 충동적 구매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⁰⁾.

소비성향의 유형 구분과 관련된 연구는 성향 파악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

7) Yeaman, I., Schanzel, H., & Smith, K.(2013), A Sclerosis of Demography : How Ageing Populations Lead to the Incremental Decline of New Zealand Tourism ,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9(2), 93-103

8) 소국섭(2009). 골프이벤트관광 지출수요 및 방문객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4), 427-446

9) 이태희·배은성(2009). 관광쇼핑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기성, 감각추구성향, 쾌락적 쇼핑성향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6), 15-35

10) 소국섭(2009). 골프이벤트관광 지출수요 및 방문객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4), 427-446

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찬복과 이광옥(2008)의 연구에서는 외식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성향을 권위추구형, 휴식추구형, 실속추구형, 체험추구형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외식 소비성향이 시장세분화를 위한 변수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태희 등(2006)은 외식 소비성향을 실속추구형, 휴식추구형, 권위추구형, 체험추구형 등으로 구분하고 소비성향의 차이를 규명한 바 있고, 강이주와 신자빈(2006)은 화장품 구매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비성향을 자원절약성향, 계획구매성향, 유행추구성향, 과시소비성향, 충동구매성향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채은(2011)은 소비성향을 계획적 소비형, 중립적 소비형, Veblen 소비형, 적극적 소비형 등 4개의 군집집단으로 분류하고, 판별분석을 통해서 분류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명소형(2016)은 소비성향을 실속추구형, 건강추구형, 계획추구형, 절약추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제품선택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현(2017)은 호텔 방문 중국 고객들의 소비성향을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여 호텔 선택속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미혜(2018)는 크루즈관광객을 대상으로 계획적, 충동적, 과시 및 타인의식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 행동의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관광 소비성향 논의

2-1. 일상소비와의 차이

관광 소비지출은 다른 소비지출과 소비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관광활동은 다른 소비 유형과는 달리 주로 일상을 벗어나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일상적인 소비행동과는 다른 소비패턴을 갖는다거나 일상적인 소비지출 보다 지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일상에서의 소비와 여가활동에서의 소비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소비행동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일상의 소비행동은 생활 필수적인 행위인 셈이고, 여가·관광을 위한 소비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일시적 소비인 셈이다.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다를

수 있다. 일상에서의 소비에서 보다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탐색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비합리적인 혹은 충동적인 요소가 평소보다 더 커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¹¹⁾

충동 구매 성향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계획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합리적 구매의 경우에 비해 많은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여행과 같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의사결정 장면에서 소비지출 금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¹²⁾

일시적인 과다 소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과시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소비자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상황에 따라 필요이상의 소비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여행활동에서의 소비지출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비성향은 평균소비성향(APC), 한계소비성향(MPC) 등과 같이 소득대비 소비지출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득 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마케팅관리 이론, 소비자심리학 등에 따르면, 소비지출은 소비자의 심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 중에서도 인지적 반응보다 감정적 반응이 소비나 구매 행동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여행활동 과정에서 소비자는 심리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여행활동이 소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여행활동으로 인한 감정 변화가 소비자 소비심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활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가 되면, 현재 소비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여행으로 인한 심리적 즐거움과 신체활동의 증가는 현실에 대한 낙관적 심리를 증가시키고,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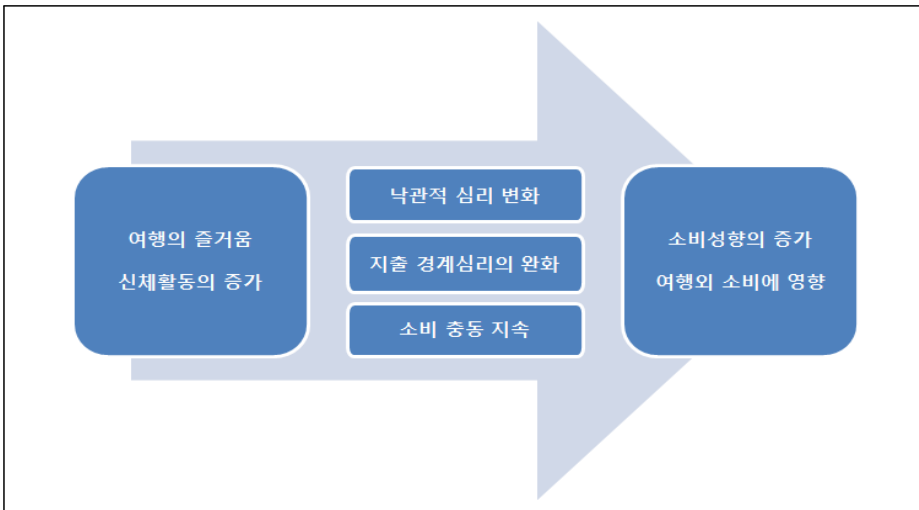
11) 고동우, 김소윤(2011), 프레임에 따른 일상과 관광의 소비지출행동 비교, 『관광학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90), pp. 259~277

12) 고동우부소영(2001), 기획축제 참가자의 소비지출 기제 탐색, 『소비자광고』 2(2), 61-79

제약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지출 경계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다.

여행 중에는 충동소비 등으로 과소비의 가능성이 있으며, 여행 후에도 소비 충동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일상에서의 다른 소비항목의 구매시 보다 이와 같은 성격이 여행시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의 결과로 미래소비를 앞당겨서 현재 소비함으로써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과정과 현상은 단기간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균형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림 2-6] 여행활동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관광소비 촉진 사례

3-1. 국내 사례

관광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로는 여행주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저소득층 여행바우처, 관광소비 쿠폰 등 여러 사례를 들 수 있지만, 단기적인 소비 촉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광소비 쿠폰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2020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여 KTX 요금, 숙박·체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중단한 바 있다. 이것은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소비촉진을 위한 메가 이벤트 차원에서는 쇼핑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과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그것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방한 및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융·복합 문화관광 쇼핑 축제로 상품 할인, 여행 편의 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2016년 처음으로 개최된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결합한 대규모 행사이다. 유통, 제조, 관광, 문화 업계의 참여를 주도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발전시킨 행사로 대규모 할인행사, K-POP 가수들이 출연하는 전야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실시한다.

3-2. 해외 사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소비의 촉진을 위해 숙박 소비 쿠폰 등 여행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999년 지역진흥권 바우처를 도입한 바 있다. 수혜 대상자는 15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주와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등이다. 1인 2만엔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며 물품구매비, 음식비, 세탁비, 택시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축된 민간 소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행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의 국내여행 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해 ‘Go To Travel’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 이전까지는 올림픽 개최 등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의 관광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이후 내수 진작을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추진중이다. 여행(Go to Travel), 외식(Go to Eat), 이벤트(Go to Event), 쇼핑(Go to 商店街) 등 4대 부문의 할인 쿠폰 프로그램에 1조 6,794억 엔을 편성하여 추진중이다. 자국민의 국내 숙박에는 1박당 2만엔을 한도로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비 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쿠폰 사용을 통해 실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비 쿠폰은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각각 요식업, 여행업, 도서업 등으로 사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80% 쿠폰들이 생활필수품에 쓰이며 타 업종 기업들의 손실 회복에는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지를 지원하기 위해 1만 5천장의 여행 바우처(할인권)를 제공하는 Cairns Holiday Dollars 프로그램을 2020년에 시행하였다. A\$200달러 상당의 퀸즐랜드 주 관광 상품권을 50% 할인하여 지역주민 1만 5천명에게 지급기로 하는 한편, 수학여행 장려책으로 100만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A\$200의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 \$400 상당을 지출해야 하며 1회 사용으로 제한된다.

이탈리아는 연 소득 4만 유로(약 5,4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여름휴가 보너스 'Holiday Bonus'를 지급한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탈리아 내 농업 관광시설, 야영장, 호텔, 리조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였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50유로(약 20만원), 2인 가구 300유로(약 40만원), 3인 이상 가구 500유로(약 68만원) 등으로 차등화 하여 지원하였다.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3장

관광 소비지출의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 목적

여행활동이 소비지출을 늘리는 부분은 여행 소비 자체를 늘리는 부분과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을 늘리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 소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어서 검증에서 제외하고 여행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여행이 자체 소비의 증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증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여행 소비 자체의 증가에 대해서는 수차례 밝히고 있으나 여행 소비가 다른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여행활동 자체의 증가 외에 다른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여행활동은 여행 소비지출 외에도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효과 있다면 결과적으로 단기 소비성향의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여행활동으로 인해 전체 소비지출도 증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및 미래 가계소비의 움직임에 대해 여행 소비지출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의도이다.

2. 방법 및 자료

먼저 여행소비의 자체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행소비와 다른 소비항목과의 상관관계, 선후행 관계분석을 위한 교차상관관계 등을 통해 소비항목간 상관성, 시차 등을 사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항목과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시계열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기로 한다. 자료기간이 분기별 자료이고 선행관계, 시차를 영향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벡터자기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분석을 이용하기로 한다. VAR 분석으로부터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충격반응함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귀분석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대입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계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변수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터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과 국민여행조사의 국민국내 여행지출액 자료를 주로 이용한다. 관광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 항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분기별 데이터를 이용한다. 국민여행조사의 자료는 분기별 자료가 없는데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데이터 수가 가장 많고, 분기별 데이터이어서 흐름을 세세하게 볼 수 있으며, 소비항목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970년부터 분기별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총 84개 분기에 대한 시계열 관찰치이다.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된 것은 지나치게 오래된 과거 자료를 배제하고 최근 경향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한국은행 국내소비지출 자료는 12개의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행을 직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항목은 없으므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와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항목을 관광 소비지출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지정한다. 다른 소비 항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관광 대리 변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항목보다는 관광 소비 성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민여행조사에 의하면 여행시 지출비용은 음식점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더라도 음식 및 숙박,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항목은 국민 국내 여행지출액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은행 소비항목 중 음식 및 숙박, 오락, 스포츠 및 문화 항목을 관광 소비지출을 설명해주는 대리변수로 사용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국민 국내 여행지출액과 소비항목간 상관분석 결과

구분	국민 국내 여행지출액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국민 국내 여행지출액	1	.972*** (.000)	.970*** (.000)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	.996*** (.000)
오락, 스포츠 및 문화			1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2004년~2019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

관광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내소비지출” 항목과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를 이용한다. 관광부문의 지출액 총액은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범위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가 2004년부터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4년~2019년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 2018~2019년 수치는 조사 기준의 변경으로 그 이전 수치와 단절되므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 방법에 의해 추세 조정 후 이용하기로 한다. 추세 조정은 ARIMA(0,1,0)에 의해 추세 연장선상의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2절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1. 시계열적 특성 검토

1-1. 자기 상관

관광 소비지출 변수를 사용할 음식 및 숙박,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 항목에 대한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변수의 관측값들이 자기상관 없이 무작위로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런 검정(run test)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 순서가 임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2〉 런 검정 결과

구분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검정값	77,308.8	55,729.6
빈도수	51	51
런의 수	2	2
Z값	-6.931	-6.931
유의확률	.000	.000

주: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1970년~2020년의 연도별 데이터

음식 및 숙박에 대해 자기상관(ACF)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각 시계열 데이터에는 자기상관이 있고, 1기 전의 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3〉 음식 및 숙박의 자기상관

시차	자기상관	표준오차	Box-Ljung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
1	.658	.274	5.770	1	.016
2	.370	.258	7.819	2	.020
3	.140	.242	8.155	3	.043
4	-.061	.224	8.229	4	.084
5	-.210	.204	9.284	5	.098

주: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1970년~2020년의 연도별 데이터

오락, 스포츠 및 문화에 대해 자기상관(ACF)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각 시계열 데이터에는 자기상관이 있고, 1기 전의 값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4〉 오락, 스포츠 및 문화의 자기상관

시차	자기상관	표준오차	Box-Ljung 통계량		
			값	자유도	유의확률
1	.644	.274	5.521	1	.014
2	.325	.258	7.102	2	.029
3	.114	.242	7.326	3	.062
4	-.042	.224	7.362	4	.118
5	-.185	.204	8.183	5	.146

주: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1970년~2020년의 연도별 데이터

1-2. 시차 검증

전체 소비지출과 음식 및 숙박, 전체 소비지출과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간의 시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교차상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뚜렷한 시차를 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변수간 선행 관계를 확인되지 않는다.

〈표 3-5〉 교차상관분석 결과

시차	전체소비-음식 및 숙박		전체소비-오락, 스포츠 및 문화	
	교차상관	표준오차	교차상관	표준오차
-3	.118	.378	.065	.378
-2	.361	.354	.316	.354
-1	.657	.333	.636	.333
0	.997	.316	.983	.316
1	.650	.333	.647	.333
2	.389	.354	.384	.354
3	.166	.378	.208	.378

주: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1970년~2020년의 연도별 데이터

2. 모형 설정 및 자료 변환

2-1. 벡터자기회귀모형

시차를 고려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분석하였다. (i) 오락, 스포츠 및 문화, (ii) 음식 및 숙박의 2개 항목을 관광 소비로 간주하고, 그 외의 소비 항목을 관광외 소비로 정의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 VAR(p)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랜저 인과 관계(Granger Causality)를 살펴보았다. 모형에 포함되는 과거 시차 p는 AIC, SC 등이 제일 작은 것으로 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AIC를 이용하였다. VAR(p) 모형의 설정은 아래와 같다.

- 분석 대상 벡터: $X_t = [C_t^{\text{관광}}, C_t^{\text{기타}1}, C_t^{\text{기타}2}, \dots, C_t^{\text{기타}n}]^T$, 여기서 $C_t^{\text{관광}}$ 은 관광 소비, $C_t^{\text{기타}i}$ 는 관광외소비인데 이를 n개의 소비 범주로 나누었을 때 i번째 관광외소비¹³⁾

- VAR(p) 모형 설정

$$X_t = c + \rho_1 X_{t-1} + \dots + \rho_p X_{t-p} + \gamma' D_t + \epsilon_t$$

D_t 는 1, 2, 3, 4분기에 대한 더미

소비항목 자료들은 분기별 시계열 자료이어서 계절성을 띠면서 불안정적(nonstationary) 자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순차적으로 감안하여 자료를 원래의 수준 변수에서 변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한번은 불안정성을 고려하여원변수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고, 다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분석한다.

로그를 취하면, 각 변수들의 서로 다른 단위가 무시되면서 로그 취한 변수의 1단위 증가는 원변수의 상대적 증가 1%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에 충격반응함수를 탄력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계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사용하기로 한다.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자연스럽게 계절성이 상쇄된다.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아래와 같이 4분기 전 분기값 대비 증가율로 계산된다.

13) 벡터 X에서 윗첨자는 전치(transpose)를 의미한다.

$R_t^X = 100 * (\ln X_t - \ln X_{t-4})$ (%), 여기서 X_t 는 t 분기의 소비

2-2. 회귀분석 모형

VAR에 근거한 그랜저 인과 관계는 두 가지 변수 X 와 Y 의 시계열에 대해서, 동기의 X_t 와 Y_t 간 영향 관계는 포착하지 못하며, 단지 시차적으로 X_{t-l} ($l = 1, 2, \dots, p$)가 Y_t 로의 영향, 반대로 Y_{t-l} ($l = 1, 2, \dots, p$)가 X_t 로의 영향만을 포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랜저 인과 관계 검정은 시차 상관계수가 핵심이며 이를 일반화한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VAR 분석에서는 동시점의 X_t 가 Y_t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 VAR의 틀 내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SVAR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기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SVAR 분석을 위해서는 추약형 오차가 아닌 구조형 오차를 식별하기 위한 구조(structure)가 가해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3가지 소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적 배경이 없으므로 구조를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X_t 와 Y_t 간 영향 관계 검증은 별도의 선형회귀분석의 틀에서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동시대적 영향력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영역이 다른 소비가 맞물려 작동하는 것이 현실 경제인데, 시차를 두고 맞물리기보다는 같은 시점에서 맞물려 작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선형회귀분석에서는 비정상성이 의심되는 수준 변수나 로그 수준 변수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증가율 변수로 분석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증가율 변수를 선택하기로 한다. 회귀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회귀분석 모형 I: $R_t^{C_3} = \alpha + \beta_1 R_t^{C_1} + \beta_2 R_t^{C_2} + \beta_4 R_t^{C_4} + \beta_5 R_t^{C_5} + \epsilon_t$
- 회귀분석 모형 II:

$$R_t^{C_3} = \alpha + \sum_{i=0}^4 \beta_{1i} R_{t-i}^{C_1} + \sum_{i=0}^4 \beta_{2i} R_{t-i}^{C_2} + \sum_{i=0}^4 \beta_{4i} R_{t-i}^{C_4} + \sum_{i=0}^4 \beta_{5i} R_{t-i}^{C_5} + \sum_{i=0}^4 \beta_{6i} R_{t-i}^{GDP} + \epsilon_t$$

C_1 : 오락 스포츠 및 문화 소비, C_2 :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소비, C_3 : 국내 관광의 소비, C_4 : 거주자 해외 소비, C_5 : 비거주자 국내 소비

R^{GDP} 는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계절성이 제거된 분기 경제성장률

위에서 모형 I은 동시대적 영향력만을 고려한 모형이고, 모형 II는 시차적 영향 관계까지 감안한 모형이다. 교차-시차 상관계수의 양상을 보면 모형 I 보다는 모형 II가 타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모형 I과 II 추정시 분기별 시계열 자료임을 고려하여 Newey-West HAC 기법으로 추정하며¹⁴⁾, 이때 오차의 자기상관에 대한 과거시차는 4로 설정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원자료

원래의 수준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 관광소비2(음식, 숙박), 관광외 소비 모두 서로 상호간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랜저 인과 관계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타나야 선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광소비가 관광외 소비를 유발하고, 역으로 관광외 소비가 관광소비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가지 범주의 소비 A와 B가 있는데, 소비 A가 소비 B를 유발하는데, 역으로 소비 B가 소비 A를 유발하지 못하는 차단 기제는 작동하기 어렵다.

〈표 3-6〉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원변수)

원인변수	반응변수	카이제곱통계량	자유도	p-값
관광소비2	관광소비1	13.846	4	0.008
관광외소비	관광소비1	29.784	4	0.000
관광소비1	관광소비2	17.897	4	0.001
관광외소비	관광소비2	42.462	4	0.000
관광소비1	관광외소비	20.338	4	0.000
관광소비2	관광외소비	8.913	4	0.063

주: 관광소비1 : 오락, 스포츠 및 문화 / 관광소비2 : 음식 및 숙박

14) Newey, Whitney K. and Kenneth D. West, 1986, A simple, positive semi-definit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conometrica*, 55(3), 703-708.

소비는 대부분 항목별로 연결되어 있고 소비와 소득이 순환 반복되므로 한 단계에서의 인과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선후행 관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는 곧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자는 그 소득을 재원으로 소비를 하며, 이 소비는 다시 다른 이의 소득이 되며, 그 소득자는 역시 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 이러한 무한의 순환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이루어질 때 거시경제적으로 소득, 즉 GDP나 GNI가 커지게 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3-2. 로그 변환

로그 수준 변수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원자료 이용 결과와 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관광소비가 관광외소비를 그랜저 인과하며, 역으로 관광외소비도 관광소비를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수준 변수의 경우와는 달리 변수간의 관계에서 비유의적인 수치를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7〉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로그 수준 변수)

원인변수	반응변수	카이제곱 통계량	p-값
ln관광소비2	ln관광소비1	7.031	0.134
ln관광외소비	ln관광소비1	11.696	0.020
ln관광소비1	ln관광소비2	4.339	0.362
ln관광외소비	ln관광소비2	19.030	0.001
ln관광소비1	ln관광외소비	18.536	0.001
ln관광소비2	ln관광외소비	12.135	0.016

주: 관광소비1 : 오락, 스포츠 및 문화 / 관광소비2 : 음식 및 숙박 서비스

3-3.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을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앞서 수준변수나 로그 수준 변수에 비해 전체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초 데이터가 갖는 정보량이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관광소비2(음식 및 숙박 서비스)가 관광외소비에 그랜저 인과 하는데 그 역의 관계는 비유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관광소비2가 관

광외소비에 선행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표 3-8〉 그랜저 인과 검정 결과(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

원인변수	반응변수	카이제곱 통계량	p-값
r관광소비2	r관광소비1	5.976	0.201
r관광외소비	r관광소비1	3.533	0.473
r관광소비1	r관광소비2	6.156	0.188
r관광외소비	r관광소비2	2.531	0.639
r관광소비1	r관광외소비	7.113	0.130
r관광소비2	r관광외소비	12.279	0.015

주: 관광소비1 : 오락, 스포츠 및 문화 / 관광소비2 : 음식 및 숙박 서비스

3-4. 회귀분석 결과

- 회귀분석 모형 I: $R_t^{C_3} = \alpha + \beta_1 R_t^{C_1} + \beta_2 R_t^{C_2} + \beta_4 R_t^{C_4} + \beta_5 R_t^{C_5} + \epsilon_t$

- 회귀분석 모형 II:

$$R_t^{C_3} = \alpha + \sum_{i=0}^4 \beta_{1i} R_{t-i}^{C_1} + \sum_{i=0}^4 \beta_{2i} R_{t-i}^{C_2} + \sum_{i=0}^4 \beta_{4i} R_{t-i}^{C_4} + \sum_{i=0}^4 \beta_{5i} R_{t-i}^{C_5} + \sum_{i=0}^4 \beta_{6i} R_{t-i}^{GDP} + \epsilon_t$$

모형 I는 동기간 관광소비의 관광외 소비에 대한 영향력만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결과,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는 관광외 소비에 매우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회귀분석 모형 I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r관광외소비
r관광소비1		0.2227*** (0.04)
r관광소비2		0.1568* (0.08)
r거주자국외		-0.0092 (0.01)
r비거주자국내		-0.0239*** (0.01)

설명변수 \ 종속변수	r관광외소비
rGDP	0.3465*** (0.16)
상수	2.4658 (0.35)
F-통계량 [p-값]	44.40 [0.0000]

주: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전년 동기 값과의 로그 차분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다.

2) 분기별 시계열 자료가 적합된 Newey-West HAC 추정 결과이다.

3) 괄호()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표준오차이다.

4)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관광소비 1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관광외 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2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 관광소비 2(음식점, 숙박) 역시 관광외 소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관광소비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관광외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15%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소비가 관광외 소비에 대해서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소비 증가율간 시차를 둔 효과를 감안한 회귀분석 모형 II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아래 <표 3-10>은 그 결과를 담고 있다. 모형 II의 결과도 앞서 추정한 모형 I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기의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 및 관광소비2(음식점, 숙박)의 증가율이 관광외 소비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소비에 시차를 둔 변수의 경우, 일부 계수 부호가 (-)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소비항목 상호간 시차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이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경우이다.

관광소비1의 영향은 동기간뿐만 아니라, 1기와 2기의 시차를 두고 관광외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관광소비2는 동기간과 1기의 시차를 두고 관광외소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기의 영향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관광소비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관광외소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0.3%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회귀분석 모형 II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종속변수	r관광외소비
r관광소비1		0.0952* (0.05)
r관광소비1(-1)		0.1196* (0.07)
r관광소비1(-2)		0.0951* (0.05)
r관광소비1(-3)		-0.0603 (0.04)
r관광소비1(-4)		-0.1193 (0.08)
r관광소비2		0.2964*** (0.08)
r관광소비2(-1)		0.1588 (0.10)
r관광소비2(-2)		-0.0844 (0.08)
r관광소비2(-3)		-0.1086* (0.06)
r관광소비2(-4)		0.0584 (0.12)
r거주자국외소비		-0.0192 (0.01)
r거주자국외소비(-1)		-0.0058 (0.01)
r거주자국외소비(-2)		-0.0123 (0.01)
r거주자국외소비(-3)		0.0075 (0.02)
r거주자국외소비(-4)		-0.0172 (0.01)
r비거주자국내소비		-0.0191** (0.01)
r비거주자국내소비(-1)		-0.0208*** (0.01)
r비거주자국내소비(-2)		-0.0026 (0.01)
r비거주자국내소비(-3)		0.0079 (0.01)
r비거주자국내소비(-4)		-0.0064 (0.01)
rGDP		0.2894** (0.14)
rGDP(-1)		-0.0987 (0.07)
rGDP(-2)		0.0786* (0.05)
rGDP(-3)		0.0573 (0.04)
rGDP(-4)		-0.0092 (0.02)
상수		2.6584*** (0.95)
F-통계량 [p-값]		49.88 [0.0000]

주: 1)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는 전년 동기 값과의 로그 차분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다.

2) 분기별 시계열 자료가 적용된 Newey-West HAC 추정 결과이다.

3) 괄호()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표준오차이다.

4)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제3절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1. 자료 검토 및 모형 설정

1-1. 자료 검토

관광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부분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내소비지출” 항목과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를 이용한다. 국내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 수치에 해당하고,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은 관광소비 수치에 해당한다.

〈표 3-11〉 분석 이용자료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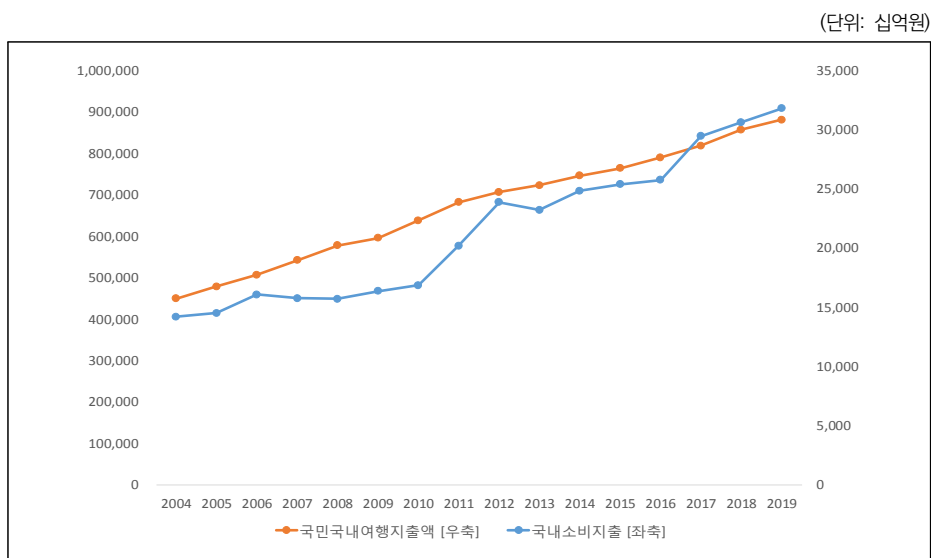
구분	국내소비지출	국민국내여행지출액
2004	449,483	14,208
2005	478,667	14,511
2006	507,044	16,081
2007	541,970	15,757
2008	577,999	15,711
2009	596,115	16,365
2010	638,077	16,860
2011	682,529	20,205
2012	706,576	23,891
2013	722,937	23,234
2014	746,287	24,846
2015	764,300	25,396
2016	790,431	25,748
2017	818,908	29,456
2018	857,075	30,629
2019	881,494	31,80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가 2004년부터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4년~2019년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한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자료는 조사 기준 변경으로 2018년 이전 연도 자료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계열 추세 조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추세는 ARIMA(0,1,0)에 의해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2019년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는 당초 43,133 십억원, 44,183 십억원에서 각각 30,629 십억원, 30,629 십억원으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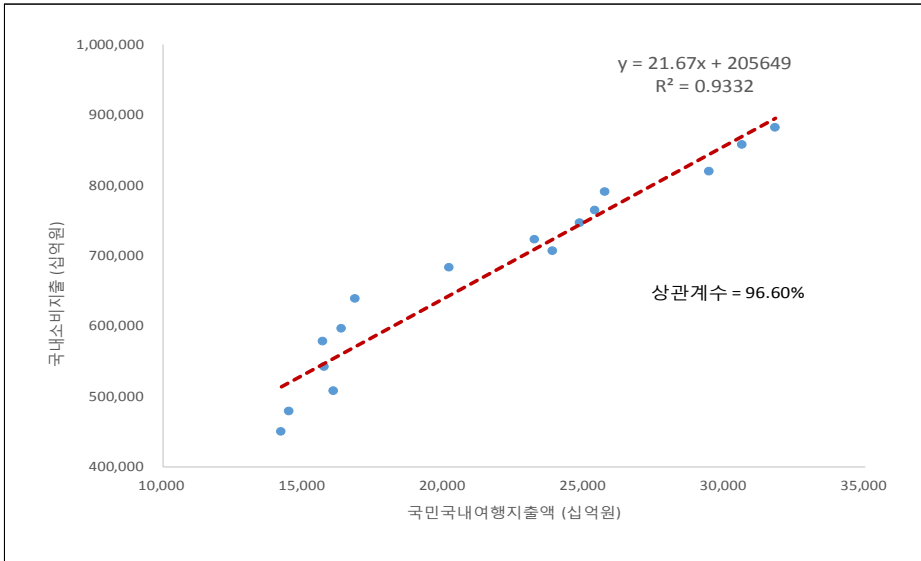
자료를 살펴보면, 국민국내여행지출액과 국내소비지출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소비지출은 상향 추세를 보이면서도 등락의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각 연도별 시계열 자료는 불안정적 자료 특성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있다.

[그림 3-1] 국민국내여행지출과 국내소비지출의 시계열 추이



또한 두 변수간 산포도를 보면, 연도별 국민국내여행지출액과 국내소비지출은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국민국내여행지출과 국내소비지출의 산포도



1-2. 분석 방법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이 국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회귀분석 모형은 소비함수 이론을 반영하여 소득변수와 금리변수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소득변수로는 명목GDP, 금리변수로는 국채3년물금리를 선택하기로 한다. 여기에 시차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민국내여행지출액, GDP에 대해서는 전기 시차변수 포함시키기로 한다.

$$Y_t = c + \rho_1 X_{1t} + \rho_2 X_{1t-1} + \rho_3 X_{2t} + \rho_4 X_{2t-1} + \rho_5 X_{3t} + \epsilon_t$$

Y_t : 국내 소비지출, X_1 : 국민국내여행지출액, X_2 : GDP, X_3 : 이자율

자료의 선택에서는 먼저 변수들의 단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원변수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한다. 관찰된 자료가 연도별 시계열임을 감안하여, Newey -West HAC 기법으로 추정하며 이 때 오차항의 자기상관 시차는 1로 설정하였다.¹⁵⁾ 다음으로, 로그 취한 변수는 불안정적 자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로그 차분

15) Newey, Whitney K. and Kenneth D. West, 1986, A simple, positive semi-definit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conometrica*, 55(3), 703-708.

한 증가율 변수로 회귀분석을 하기로 한다. 다만, 금리 변수인 국채3년 금리는 단순 차분하여 사용한다.

$$R(X_t) = 100 * (\ln X_t - \ln X_{t-1}) (\%) \text{ 여기서 } X_t \text{는 } t \text{분기의 소비}$$

2. 분석 결과

2-1. 로그 수준 변수

GDP의 통제 여부, 과거 시차 변수의 통제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 모형에서 모두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은 동기간 국내 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로그 수준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ln(국민국내여행지출액)	0.0717*** (0.03)	0.0316** (0.01)	0.0242** (0.01)
ln(국민국내여행지출액(-1))			-0.0611 (0.06)
ln(명목GDP)		0.9095*** (0.04)	0.4091* (0.24)
ln(명목GDP(-1))			0.5508*** (0.26)
국채3년물금리		-0.0201** (0.01)	-0.0140*** (0.01)
상수	6.2634*** (0.73)	0.1662 (0.45)	0.4754 (0.63)
N	16	16	15
F	101.3	868.8	1,407.2
[p-값]	[0.0000]	[0.0000]	[0.0000]

주: 1) 종속변수는 로그 취한 국내소비지출이다.

2)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적합된 Newey-West HAC 추정 결과이다.

3) 괄호()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표준오차이다.

4)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모형 III을 보면, 당기, 전기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이 모두 국내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의 1%

증가시 동기 국내 소비지출이 약 0.02%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2. 로그 차분한 증가율 변수

여기서도 GDP의 통제 여부, 과거 시차 변수의 통제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는데, 모형 IV는 F-통계량을 볼 때 적절한 모형설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모형에서는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은 동기간 국내 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로그 차분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R(국민국내여행지출액)	0.0149 (0.06)	0.0376** (0.02)	0.0022 (0.04)
R(국민국내여행지출액) ₍₋₁₎			0.0031 (0.03)
R(명목GDP)		0.4991*** (0.14)	0.4336* (0.23)
R(명목GDP) ₍₋₁₎			0.4941** (0.16)
△국채3년금리		1.5733** (0.57)	1.2630** (0.50)
상수	4.4099*** (0.73)	2.0611* (0.94)	-0.1839 (1.79)
N	15	15	14
F	0.0618	16.86	11.84
[p-값]	[0.9986]	[0.0199]	[0.0073]

주: 1) 종속변수는 로그 차분한 취한소비지출이다. 설명변수도 모두 로그 차분한 증가율이며, 국채3년금리만 차분하였다.

2)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적합한 Newey-West HAC 추정 결과이다.

3) 괄호() 안의 수치는 Newey-West HAC 표준오차이다.

4) *, **, ***는 각각 양측 10%, 5%,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모형 VI에서는 당기, 전기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이 모두 국내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F-통계량 값에서 모형 V가 모형 VI보다 높으므로 이에 모형 V를 기준으로 해석하자면,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의 연도별 증가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소비지출의 연도별 증가율이 0.0376% 포인트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4장

여행 소비성향 설문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번 설문조사는 여행 소비지출 관련 항목들에 대한 일반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로 우리 국민의 여행 소비지출 성향, 여행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여행후 소비심리 변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위의 계량분석에서도 여행이 소비촉진 효과를 갖을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근거인데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개별 소비자의 의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계량분석을 보완하는 미시적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행시 소비심리 변화와 소비지출 증가의 관련성, 여행 소비지출 성향과 여행횟수의 관련성 등을 추가 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여행 소비지출 성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면서도 소비자 개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표 4-1〉 여행 소비지출 성향 설문조사 대상

구분	내용
목표 모집단	2021년 7월 기준 만 20세 이상 국민
표본틀	2021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록인원
표본 크기	500명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pm 4.38\%$
조사 기간	2021. 08. 17 ~ 2021. 08. 20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본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 500명을 표본추출 하되, 만 20세 미만은 제외하였다. 최근 국내 여행 경험자가 비경험자 보다는 더 많도록 하고, 성별/연령별 분포는 고르게 나오도록 표본추출을 설계하였다. 표본 추출틀은 2021년 7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배분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인구비례할당법을 적용하되, 단, 최소표본수 확보를 위해 지역의 경우 5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Intel Core i5를 사용하여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 처리 하였다.

〈표 4-2〉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00)	100.0
성별	남성	(248)	49.6
	여성	(252)	50.4
연령	20대	(79)	15.8
	30대	(76)	15.2
	40대	(96)	19.1
	50대	(101)	20.2
	60대 이상	(148)	29.6
거주 도시	수도권	(256)	51.2
	충청권	(58)	11.6
	경상권	(131)	26.3
	전라권	(42)	8.4
	강원	(10)	2.0
	제주	(3)	0.6

2. 설문 구성

이번 조사에서는 여행활동이 소비자의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여행과정에서의 소비지출 성향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행시 소비 심리 변화는 여행활동이 소비지출 성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문항이다. 이러한 심리 변화가 실제 소비성향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행과정에서의 소비지출 성향에 대한 여러 질문은 여행자의 소비성향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전 문헌처럼 계획구매형, 실속추구형, 과시소비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성향 유형에 따라 여행횟수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비성향에 관한 질문문항은 여러 선행연구의 소비성향 분류와 설문지 구성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김태희 등(2006)은¹⁶⁾ 외식소비성향을 실속추구형, 휴식추구형, 권위추구형, 체험추구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고, 우찬복, 이광옥(2008)은¹⁷⁾ 소비성향을 권위추구형, 휴식추구형, 실속추구형, 체험추구형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기영과 백종온(2010)은¹⁸⁾ 소비성향을 건강추구형, 휴식추구형, 관계추구형 등으로 구분한 바 있고, 이채은(2011)은¹⁹⁾ 계획적 소비형, 중립적 소비형, Veblen 소비형, 적극적 소비형 등으로 구분된 4개의 군집 집단을 도출한 바 있다. 명소형(2016)은²⁰⁾ 소비성향을 실속추구형, 건강추구형, 계획추구형, 절약추구형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미혜(2018)는²¹⁾ 계획적, 충동적, 과시 및 타인의식적 성향 등의 구분에 맞추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

16) 김태희·이승하·박홍연(2006).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석”.『관광연구저널』. 20(3). pp.313-323

17) 우찬복·이광옥(2008). “소비자의 가치체계에 따른 외식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관광연구저널』. 22(2). pp.159-172

18) 김기영·백종온(2010).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감정반응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한국조리학회지』. 16(3). pp.147-160

19) 이채은(2011). “외국인 고객의 소비성향에 따른 호텔선택 결정속성의 차이분석”.『관광연구』. 26(1). pp.311-330

20) 명소형(2016). “소비가치에 따른 브랜드 장르의 소비성향이 제품선택속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카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21) 이미혜(2018). “크루즈관광객의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광경영연구』. 22(4). pp.1167-1186

는 가운데 여행 소비성향이 가장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여행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항목과 전체 소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내용은 앞의 계량분석 내용과 연관되는 것인데, 계량분석의 부족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문 문항에 포함되었다.

〈표 4-3〉 조사 내용

구분	조사문항
I.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거주 지역
II. 여행 소비지출 성향	최근 3개월간 국내 여행 경험 횟수
	여행 관련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행 경험 후 심리변화
	여행 관련 소비지출 성향
	국내 여행활동이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여행활동이 여행 소비 외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항목
	여행소비쿠폰 제공시 여행 관련 소비와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여행활동 증가로 인한 과소비 발생 시 대처 방법

제2절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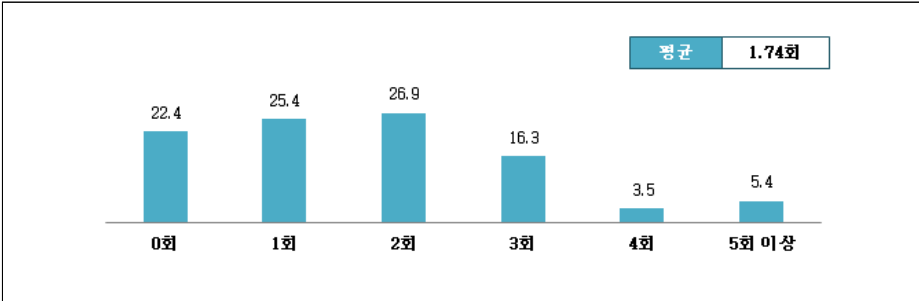
1. 여행횟수, 소득대비 비중

1-1. 최근 3개월 내 국내 여행 횟수²²⁾

최근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국내 여행은 1.74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회'가 22.4%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국내 여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02회),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국내 여행 횟수가 더 많았다²³⁾.

[그림 4-1] (최근 3개월) 국내 여행 횟수

(단위: %, n=500)



1-2. 여행관련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45.4%), '낮다'는 응답이(34.3%, 매우 낮음 21.0% + 약간 낮음 13.3%) '높다'는 응답에 비해(20.3%, 매우 높음 1.8% + 약간 높음 18.6%)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20대에서 소득 대비 여행 관련 지출이 높게 나타난다(64.5%).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소득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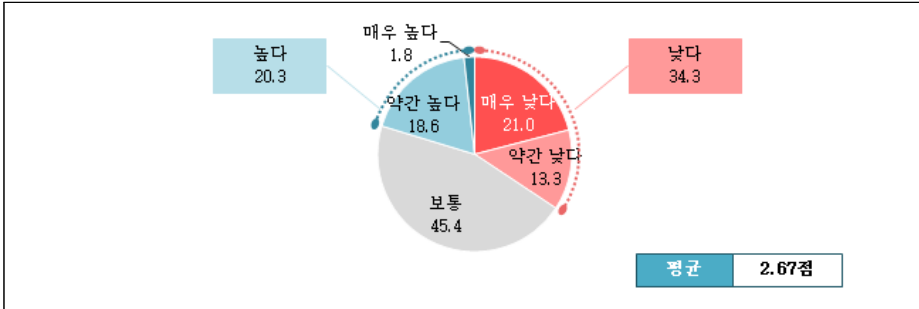
22) 이 문항은 여행 소비성향 유형에 따라 여행횟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질문된 것이다

2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기로 한다.

여행 관련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28.7%)

[그림 4-2] 여행 관련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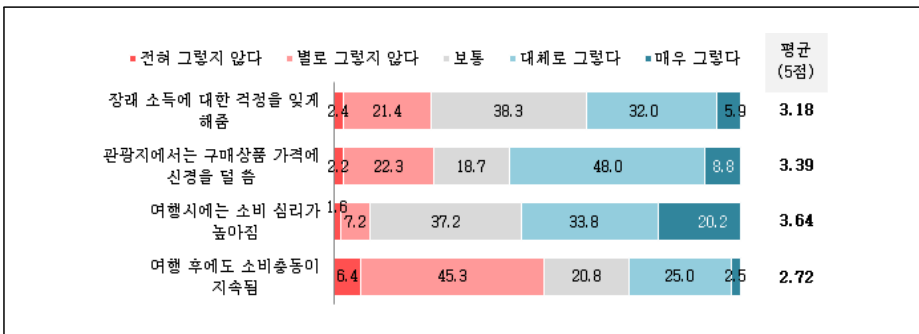


2. 여행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여행이후 소비심리에 변화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질문한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이 5점 척도에 2.72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제 심리적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행시에는 평소보다 소비 심리가 높아짐’(3.64점) 평균이 더 높으면서도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통’과 ‘대체로 그렇다’에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행 후에도 소비충동이 지속됨’(2.72점) 항목이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별로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3] 여행 경험 후 심리변화

(단위: %, n=500)



3. 여행 소비지출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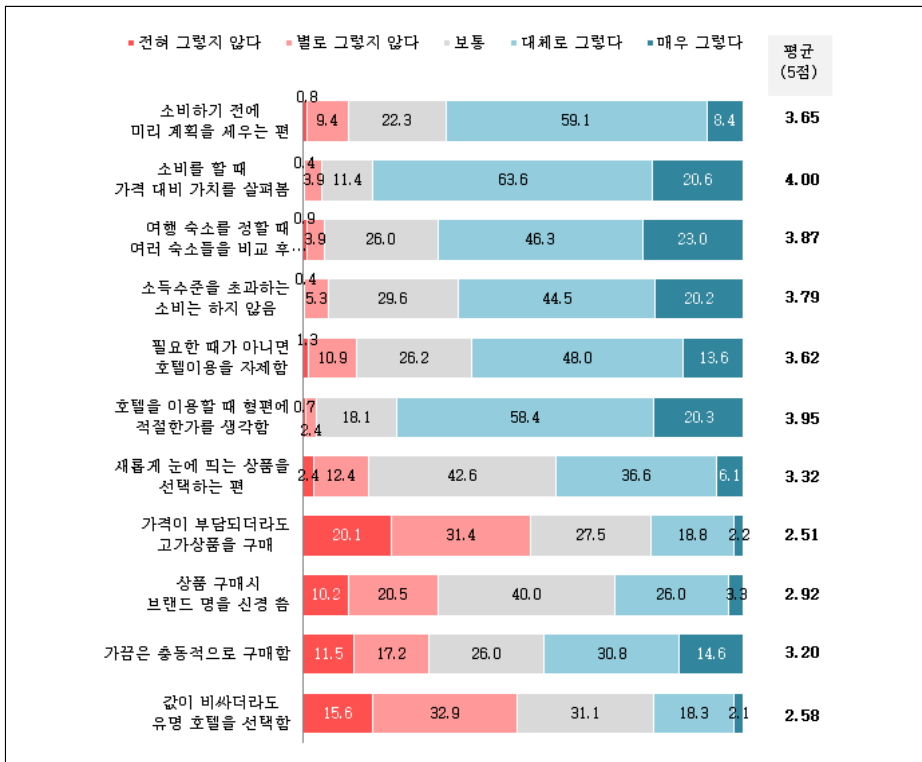
소비성향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서는 계획 구매, 실속 추구 성격이 과시 소비 성격 보다는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과시 소비 성격이 다른 소비 성격 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소비를 할 때 가격 대비 가치를 살펴봄’(4.00점), ‘호텔을 이용할 때 형편에 적절한가를 생각함’(3.95점), ‘여행 숙소를 정할 때 여러 숙소들을 비교 후 이용’(3.87점),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소비는 하지 않음’(3.79점) 등 합리적 소비 관련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인다.

반면, 과시형 소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고가상품을 구매’(2.51점),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호텔을 선택함’(2.58점) 등의 항목 점수는 낮게 나타난다.

[그림 4-4] 여행 관련 소비지출 성향

(단위: %,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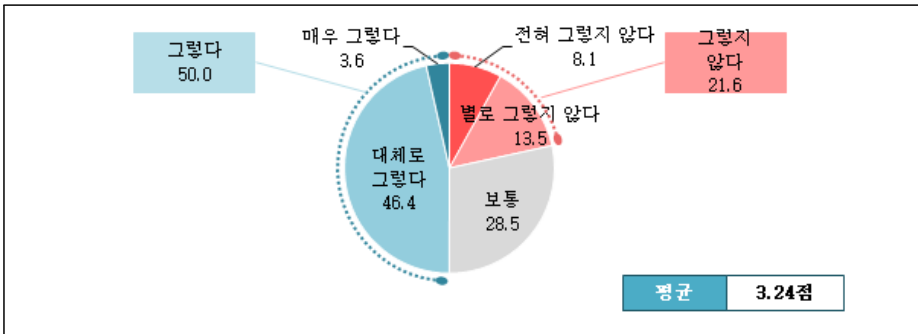
4. 여행활동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4-1.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활동이 전체적인 소비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자가 50.0%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매우 그렇다 3.6% + 대체로 그렇다 46.4%).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1.6%이다(전혀 그렇지 않다 8.1% + 별로 그렇지 않다 13.5%).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국내 여행활동이 전체 소비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단위: %,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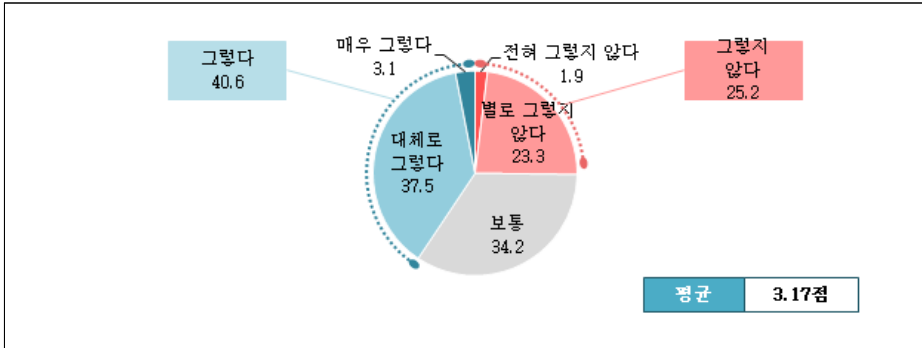


4-2.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0.6%로(매우 그렇다 3.1% + 대체로 그렇다 37.5%) ‘그렇지 않다’에 비해(25.2%, 전혀 그렇지 않다 1.9% + 별로 그렇지 않다 23.3%) 높았다. 이 항목에서도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6] 국내 여행활동이 다른 소비항목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단위: %,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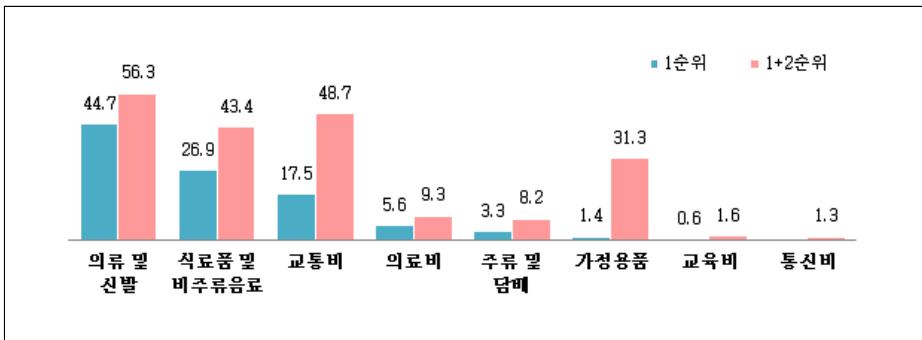


4-3. 여행 증가시 늘어날 소비항목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기타 소비 지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n=203)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많아지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항목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의류 및 신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4.7%), 다음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26.9%), ‘교통비’(17.5%) 등의 순으로(1순위 기준) 나타났다. 2순위 응답까지 고려하였을 때, ‘가정용품’이라는 응답이 31.3%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50대의 경우 ‘교통비’(30.9%) 및 ‘주류 및 담배’(24.7%)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4-7]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많아지면 함께 늘어날 소비항목

(단위: %, n=203)



5. 소비쿠폰, 과소비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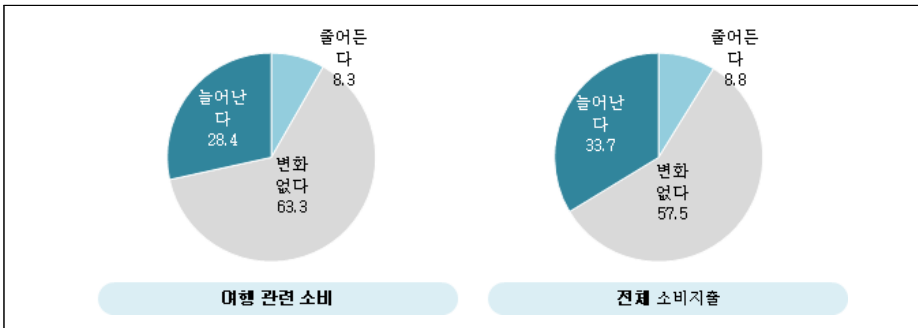
5-1. 여행소비쿠폰 제공시 지출에의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여행소비쿠폰이 제공된다면 지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질문한 결과, 여행 관련 소비와 전체 소비지출 모두 ‘변화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각 63.3%, 57.5%), ‘늘어난다’는 응답은 여행 관련 소비에서보다(28.4%) 전체 소비지출에서(33.7%) 더 높게 나타났다. 여행 관련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 30대 ~40대,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성별로는 남성,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4-8] 여행소비쿠폰 제공시 지출에의 영향

(단위: %,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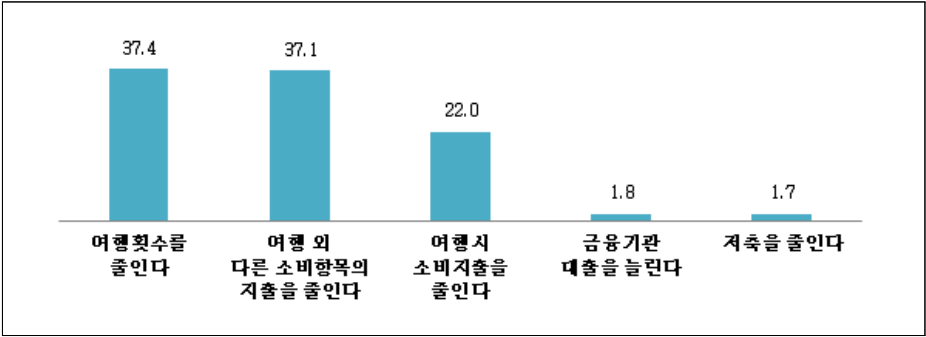


5-2. 여행활동 증가로 인한 과소비 대응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행활동 증가로 인해 과소비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여행횟수를 줄인다’(37.4%), ‘여행 외 다른 소비지출 항목의 지출을 줄인다’(37.1%)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을 늘린다’(1.8%), ‘저축을 줄인다’(1.7%) 등의 응답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여행활동 증가로 인한 과소비 대처법

(단위: %, n=500)



제3절 심층 분석

1. 소비성향 분류

소비성향에 대한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선행연구처럼 여행관련 소비성향이 계획구매형, 실속추구형, 과시소비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model)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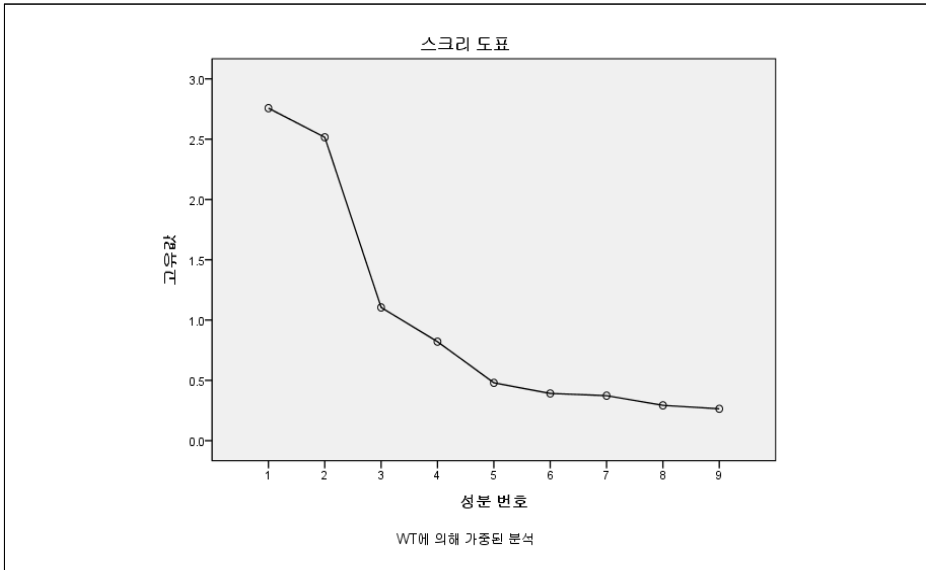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717이며 바틀렛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은 0.00으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2.757	30.636	30.636	2.757	30.636	30.636	2.754	30.596	30.596
2	2.516	27.955	58.591	2.516	27.955	58.591	1.952	21.693	52.288
3	1.105	12.272	70.863	1.105	12.272	70.863	1.672	18.575	70.863

고유치(eigen value)의 스크리 차트(scree chart)는 요인수 3과 4 지점에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곡선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 고유치가 1 이상인 3개의 요인수준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의 요인이 설명할 수 있는 누적 분산은 전체분산의 70.86%로 나타났다.

[그림 4-10] Scree Chart



요인추출 기준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0.4 이상, communality 0.5 이상으로(Hair et al., 1995) 설정하여 요인부하량이 아주 낮거나 여러 요인들에 모호하게 분산된 문항들이 제거되도록 하였다. 회전방법은 판별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 방법의 하나인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각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된다.

소비지출 성향 질문 4번, 7번을 제외하고 요인분석할 경우 가장 요인간 차별성이 확연히 나타난다. 속성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대부분 0.7 이상으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확보되었다. 선행연구처럼 여행관련 소비지출 성향은 계획구매형, 실속추구형, 과시소비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4-5〉 요인분석 결과(rotated component matrix)

구분	요인1(과시소비형)	요인2(계획구매형)	요인3(실속추구형)
Q4_1		.763	
Q4_2		.622	
Q4_3		.864	
Q4_5			.891
Q4_6			.698

구분	요인1(과시소비형)	요인2(계획구매형)	요인3(실속추구형)
Q4_8	.847		
Q4_9	.835		
Q4_10	.710		
Q4_11	.869		

2. 요인간 상관분석

소비지출 유형과 여행횟수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과시소비형 소비유형이 국내여행횟수와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계획구매형, 실속추구형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시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여행을 자주 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간의 상관계수 유의확률이 1로 나타나는 것은 요인분석에서 직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인간 상호독립적(orthogonal) 관계가 유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6〉 상관계수(소비지출 유형과 여행횟수)

구분	Q1(여행횟수)	요인1 (과시소비형)	요인2 (계획구매형)	요인3 (실속추구형)
Q1(여행횟수)	1	.414*** (.000)	-.058 (.198)	-.041 (.366)
요인1(과시소비형)		1	.000 (1.000)	.000 (1.000)
요인2(계획구매형)			1	.000 (1.000)
요인3(실속추구형)				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여행활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와 여행이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5% 유의수준으로 검증했을 때, 여행이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는 Q3_2(관광지에서의 가격 민감성 감소), Q3_3(여행시 구매심리 상승)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호를 보이고 있어서 여행에 따른 소비심리 상승이 전체 소비지출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인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므로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여행활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와 여행이 다른 소비항목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는 Q3_2(관광지에서의 가격 민감성 감소), Q3_3(여행시 구매심리 상승), Q3_4(여행 후 소비충동 지속)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계수 또한 (+)부호로서 여행 활동을 통한 소비심리의 변화가 여행의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단한 상관분석을 통해서도 여행활동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가 소비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7〉 상관계수(여행심리 변화와 소비지출)

구분	Q3_1 (여행에 따른 소득걱정 감소)	Q3_2 (관광지에서의 가격 민감성 감소)	Q3_3 (여행시 구매심리 상승)	Q3_4 (여행후 소비충동 지속)	Q5 (여행이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Q6 (여행이 다른 소비항목 지출에 미치는 영향)
Q3_1	1	.466*** (.000)	.409*** (.000)	.144*** (.001)	-.079* (.078)	.051 (.256)
Q3_2		1	.506*** (.000)	.256*** (.000)	-.100** (.025)	.089** (.046)
Q3_3			1	.230*** (.000)	-.160*** (.000)	.171*** (.000)
Q3_4				1	-.057 (.203)	.107** (.016)
Q5					1	.461*** (.000)
Q6						1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5장

관광관련 세수 추계

제1절 기초통계 검토

1. 국세청, 국세통계

1-1. 관광 유관 업종의 징수 실적

국세청 국세통계에서는 연도별, 세목별 징수현황 통계가 담겨 있다. 몇몇 세목은 업태별로도 징수실적을 집계하고 있지만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세통계연보에서 업종의 구분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업종 등 14개로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이 관광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음식·숙박업이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음식·숙박업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살펴보면, 2020년 342,269 백만원으로 나타난다.

〈표 5-1〉 법인세 징수 현황(2020년)

업종	신고법인수	산출세액(백만원)
음식·숙박업	741	342,26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구분하여 징수 현황이 집계되고 있다. 업태별로는 음식업과 숙박업이 구분되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으로 신고 이후 세무서의 확인, 조정을 거치므로 실제 부담한 금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5-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업종	기간	신고인원(명)	납부세액
법인사업자	음식업	1기	26,599	551,128
		2기	37,603	569,577
	숙박업	1기	2,986	-69,311
		2기	3,096	31,635
일반사업자	음식업	1기	524,859	1,833,075
		2기	557,053	1,841,073
	숙박업	1기	25,671	34,095
		2기	26,456	64,04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종합소득세는 신고 현황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과세소득, 결손소득만 파악되고 있고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업태별로는 징수 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표 5-3〉 숙박음식점업의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현황(2019년)

(단위: 백만원)

과세소득		결손소득	
건수	소득금액	건수	소득금액
806,271	11,534,370	92,298	-1,207,370

1-2. 조세의 구분

조세는 징수주체에 따라서 크게 국세,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조세부담의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연결되는데, 대표적인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등이 있다.

국세의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세금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을 들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만

을 대상으로 한다.

조세는 부과 성격에 따라서는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로 분류할 수도 있다. 소득과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재산과세에는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표 5-4〉 우리나라 조세체계

구분			세목	근거법률
국세	내국세	직접세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간접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주세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인지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지방세	관세			관세법
	부가세		교육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보통세		취득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레저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1. 법인세 비용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에는 업종별 법인세 비용 규모가 나타난다. 기업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income taxes)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법인세는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번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및 법인세에 추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법인세,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다²⁴⁾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되는데 당해 연도의 법인세 부담 외에도 미래에 발생할 법인세 부담의 증감을 포괄하고 있다. 결산일 이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는 ‘법인세 부담액’은 회계장부상의 법인세 비용에서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분을 차감하고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분을 더하여 계산된다. 이연법인세 부채 증가분은 과세이연 등에 의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 자산 증가분은 세액 공제 또는 결손공제 등 각종 감면혜택 중 이월된 부분을 말한다. 실현 시기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의 경영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세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회계상의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세분류의 업종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숙박업, 여행업 등 몇몇 업종만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관광산업 관련 전체 업종의 세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과 연관성을 갖는 업종으로 숙박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운송업 등의 법인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김근수(2006), 『여행업, 호텔업, 골프장업, 외식업의 경영매뉴얼』

〈표 5-5〉 관광 관련 업종의 법인세 비용(합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숙박업 (1,814개)	62,838	88,639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8,508개)	36,693	46,07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686개)	308,878	406,788
항공운송업 (149개)	3,338	-427,415
전산업 (741,408개)	59,575,463	42,734,074

주: 괄호는 2019년 조사대상 업체수

참고로 나이스평가정보의 Kisline 자료는 업종구분이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다 세부 업종 자료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에 누락되어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업종별 합산 업체수가 매출액, 순이익, 제세공과 등 다른 손익항목에 비해 극히 적은 단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 5-6〉 관광 관련 업종의 법인세 비용(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호텔업 (22개)	238	-12,098
휴양콘도운영업 (7개)	3,597	-1,684
여행사업 (24개)	-824	-288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5개)	115	-316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3개)	-16	-1,001

주: 괄호는 2019년 조사대상 업체수

2-2. 세금과 공과

기업경영분석에는 업종별 조세공과 비율이 나타난다. 손익계산서의 세금과공과(taxes and dues) 계정과 관련이 있다. 세금과공과는 판매관리 부문과 제조부문에 서 발생된 제 세금과 공과를 말한다. 영업 및 관리조직과 관련된 세금과공과는 손익계산서에, 공장(제조)관련 세금과공과는 제조원가계산서에 표시된다.

〈표 5-7〉 관광 관련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 비율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숙박업	7.39	7.52	8.24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2.69	2.64	3.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6	7.50	7.47
항공운송업	0.90	1.05	1.43
전산업	1.55	1.55	1.8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세금과공과에 포함되는 세금은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인지세 등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과금은 동업조합, 협회 등의 각종 회비 부담금으로서 상공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각종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과징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별도로 표시되므로 세금과공과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또는 제조원가에 포함하는 개별소비세, 관세 등은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사업자와의 매입금액 및 판매금액에서 발생한다. 부가세대금이라는 자산계정 혹은 부가세예수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기록을 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 또는 납부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의 세금과공과 규모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8〉 관광 관련 업종의 판매및관리비 중 세금과공과(합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숙박업	109,340	110,137	129,51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33,015	32,325	42,6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5,759	396,288	465,573
항공운송업	33,830	37,545	46,985
전산업	11,822,353	12,342,093	13,470,549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참고로 나이스평가정보의 Kisline 자료의 세금과공과는 법인세 비용에 비해서는 조사대상 업체수가 많아서 자료로서는 유용하다. 다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과 업종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세수 규모 추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9〉 관광 관련 업종의 세금과공과(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호텔업 (693개)	172	206
휴양콘도운영업 (55개)	322	346
여행사업 (1,843개)	8	10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973개)	16	17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67개)	105	151

주: 괄호는 2019년 조사대상 업체수

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1. 관광 유관 업종의 생산세 규모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는데, 5년 단위 기본조사에서 일부 통계청 자료만 반영해서 연도별로 연장표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간접세, 지방세 납부 규모는 산업연관표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간접세 수치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하다. 투입산출표에서 중간투입계 하단 부가가치계를 구성하는 순간접세(간접세-보조금)를 통해 상품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세를 파악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보조금 공제)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실제로는 생산자가 이를 생산비에 포함하여 그 부담을 최종 구입자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생산세는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직접세와 구별된다.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수치를 순생산세라고 한다.

생산세는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부가가치세, 기타생산물세²⁵⁾, 기타생산세²⁶⁾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생산물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기타생산세로는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들 수 있다.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되는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상품세는 생산세 항목에서 제외하고 수입의 일부로 간주하여 최종수요의 공제항목으로 처리한다.

기초가격 기준 투입산출표의 부가가치에는 생산세 중 기타생산세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생산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중 생산물세 부과분을 제외한 실질 수취금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구매자 가격 및 생산자가 가격 기준 투입산출표에는 기타생산세 및 국산 부가가치세·기타생산물세가 포함되어 있다²⁷⁾.

이러한 생산세는 국세를 제외한 간접세와 지방세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승수에서는 간접세 승수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는 간접세 외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25) 재화 및 서비스의 수량 및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

26)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하여 부과

2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보아야 한다.

생산세 통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등을 주요자료로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 매출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 매출세액에서 원자료 및 각종 경비 구입시에 지급한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상품분류의 생산세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실제 보조금 공제는 없어서 순생산세로 볼 수 있다.

〈표 5-10〉 관광 연관 상품의 생산세 현황

(단위: 백만원)

상품	생산세(보조금 공제)	
	2017년	2018년
항공운송서비스(5500)	56,196	44,667
숙박(5820)	551,299	601,968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7904)	350,758	407,110
오락서비스(8002)	3,218,351	3,266,997

주: 괄호는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번호

자료: 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2017 연장표, 2018 연장표)

4-2. 산업연관표 설명

산업연관표의 구조는 거래관계에 따라 크게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분된다. 내생부문은 모형 내에서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는 각 부문 상호 간의 거래가 기록된다. 산업연관표의 핵심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생부문인 $A = \begin{bmatrix} A_{1,1} & A_{1,2} & \dots & A_{1,402} \\ A_{2,1} & A_{2,2} & \dots & A_{2,402}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A_{402,1} & A_{402,2} & \dots & A_{402,402} \end{bmatrix}$ 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행렬의 원소

A_{ij} 는 j 번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i 번째 재화를 의미한다.

외생부문은 모형 밖에서 값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아래 그림에서 A로 표시된 부문). 외생부문의 횡축(row)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부분을 나타내며, 종축(column)은 파용자본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등 부가가치를 보여준다.

〈표 5-11〉 산업연관표의 형태

투입 \ 수요		내생부문			외생부문					총 수요	수입	산출
		상 품 1	상 품 2	· · ·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수출	최종 수요			
내생 부문	상품 1 2 :	A										
	중간투입계											
외생 부문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보조금											
	부가가치계											
총투입액												

4. 산업별 비교

4-1. 법인세

산업별 세금 징수실적은 국세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산업별로 살펴 본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존 연구에²⁸⁾ 잘 나타나 있으므로 본 연구도 해당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관광과 밀접한 분야의 실효세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한 수치이다. 한 사업연도의 경영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기업재무 제표상의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에 기초하여 다양한 세무 조정 항목과 결손금 이월 공제, 비과세·감면 등의 조정을 통해 산출된다.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전체 기업을 14개의 업태로 구분하여 과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하되, 관광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광업종의 핵심 업종인 음식·숙박업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8) 김빛마로(2021),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신고연도 기준 산업별 평균 실효세율은 농·임·어업이 13.2%로 모든 산업 중 가장 낮았으며, 금융보험업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업, 서비스업, 도매업 등은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이 낮은 반면, 부동산업, 제조업은 실효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⁹⁾.

대표적인 관광 관련 산업인 음식 및 숙박업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17.7%로 전산업 평균인 19.1%보다 다소 작다. 그러나 2018년을 보면 음식 및 숙박업이 전체 산업과 실효세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2〉 산업별 평균실효세율 비교

구분	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서비스업
2018년	17.6%	17.8%	16.4%
2019년	17.7%	18.5%	16.2%
구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2018년	14.7%	9.6%	16.6%
2019년	13.2%	15.4%	19.3%
구분	도매업	소매업	전산업
2018년	16.2%	18.9%	17.6%
2019년	16.7%	18.5%	19.1%

자료: 김빛마로(2021),『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실효세율은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연도에 세율 구조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이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같으면 실효세율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은 법인의 이익이 작다는 것을 내포한다. 실효세율이 낮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기업의 규모 차이, 비과세 및 감면이 많은 산업인 경우 등이다.

산업별 세부담의 차이는 산업별 기업규모 분포의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조세혜택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특정 산업에 규모가 큰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평균적인 세부담 수준은 높아진다. 반면, 특정 산업에서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들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만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부담 수준 역시 낮

29) 김빛마로(2021),『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게 나타날 것이다³⁰⁾.

또한 업종별로 다른 일부 비과세 및 감면의 차이 즉 산업별 조세지원제도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지는 않다. 업종별 기업규모의 분포 차이가 동일하더라도, 업종별 자산 구성의 차이로 인해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A자산에는 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업의 투자 비중이 높은 B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없다면, 기업규모의 분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업종별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2. 간접세 및 지방세

간접세를 포괄하는 자료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나는 순생산세이다. 국세청 등 다른 자료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일부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산업별로 간접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행서비스는 영업잉여 대비 간접세는 51.5% 수준에 이른다. 전체 산업이 영업잉여 대비 간접세 비율이 36.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숙박서비스는 해당 비율이 222.3% 수준으로 매우 높고, 음식점도 91.1%로 높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간접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간접세는 기업이 조세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해당 분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 대비 영업잉여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해당 산업의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여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각종 운송서비스의 경우는 간접세가 거의 없는 실정이거나 오히려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다.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비 간접세의 비율을 보면 전체 산업이 8.45%이고, 여행서비스가 7.45%이다. 따라서 여행서비스 분야에 대한 간접세는 다른 산업에 비해 조금 낮게 부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숙박서비스는 그 비율이 8.65%로 전체 산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관광소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업종의 간접세 비중이 특별히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음식점은 그 비율이 18.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스

30) 김빛마로(2021),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포츠/오락 분야도 부가가치 대비 간접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오락의 경우에 개별소비세, 레저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운송서비스 분야는 부가가치 대비 간접세의 비율이 낮는데, 이는 각종 시내버스, 지하철에 주는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이 있기도 하지만 운송서비스 분야가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5-13〉 산업별 간접세 비율 (영업잉여 및 부가가치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음식점	숙박서비스	여행서비스
영업잉여	10.4	0.3	1.4
부가가치	51.6	7.0	9.3
생산세	9.5	0.6	0.7
간접세/영업잉여	91.07%	222.28%	51.46%
간접세/부가가치	18.40%	8.65%	7.45%
구분	도로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영업잉여	1.6	-0.1	-1.5
부가가치	19.3	5.7	4.3
생산세	-3.8	0.1	-0.7
간접세/영업잉여	-242.99%	-129.03%	45.15%
간접세/부가가치	-19.77%	1.19%	-16.21%
구분	스포츠/오락	도소매	전체 산업
영업잉여	4.5	48.8	444.9
부가가치	18.3	152.1	1,900.7
생산세	5.5	13.4	160.7
간접세/영업잉여	121.45%	27.35%	36.11%
간접세/부가가치	30.02%	8.78%	8.45%

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2019연장표 등을 이용하여 계산

제2절 세수 규모 추정

1. 추정 방법

본 연구는 관광소비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관광소비가 0인 경우와 현재 수준의 소비간의 세수 차이가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된다. 관광소비는 관광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해당 산업으로부터의 조세가 증가하는 직접적 효과 이외에 관광산업 이외의 분야에서 나오는 간접적인 세수 증가 효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광소비가 인하여 음료 판매가 증가하였다면 해당 음료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도 증가한다. 또한 해당 음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인력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있고, 해당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도 있을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사실상 세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관광소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목은 다양하다. 소득세, 법인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에도 영향을 준다.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해보면 관광소비 증가가 숙박 업계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세수 파악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는 산업연관표이다. 산업연관표는 특정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산업별로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소비가 전산업에 주는 영향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면 외생적 충격, 즉 소비 또는 투자가 파용자보수, 기업의 영업잉여, 간접세, 전체 부가가치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관광소비가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기로 한다. 산업연관표에 순생산세가 나타나 있으므로 관광소비가 인하여

간접세를 살펴보는 것의 문제는 없지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부문은 세수 실적을 감안하여 추정한다. 관광소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여 부가가치 창출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각종 세금 징수실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 규모를 세목별로 추정하기로 한다. 세수 실적 파악에는 국세청 자료를 사용한다.

한편 산업연관표 외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 간접세 및 지방세 등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세수 규모를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추정상의 실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추정의 기준연도는 산업연관표가 2018년까지만 생산되고 있고 다른 필요 자료들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도가 2018년 이어서 이 연도를 추계의 기준연도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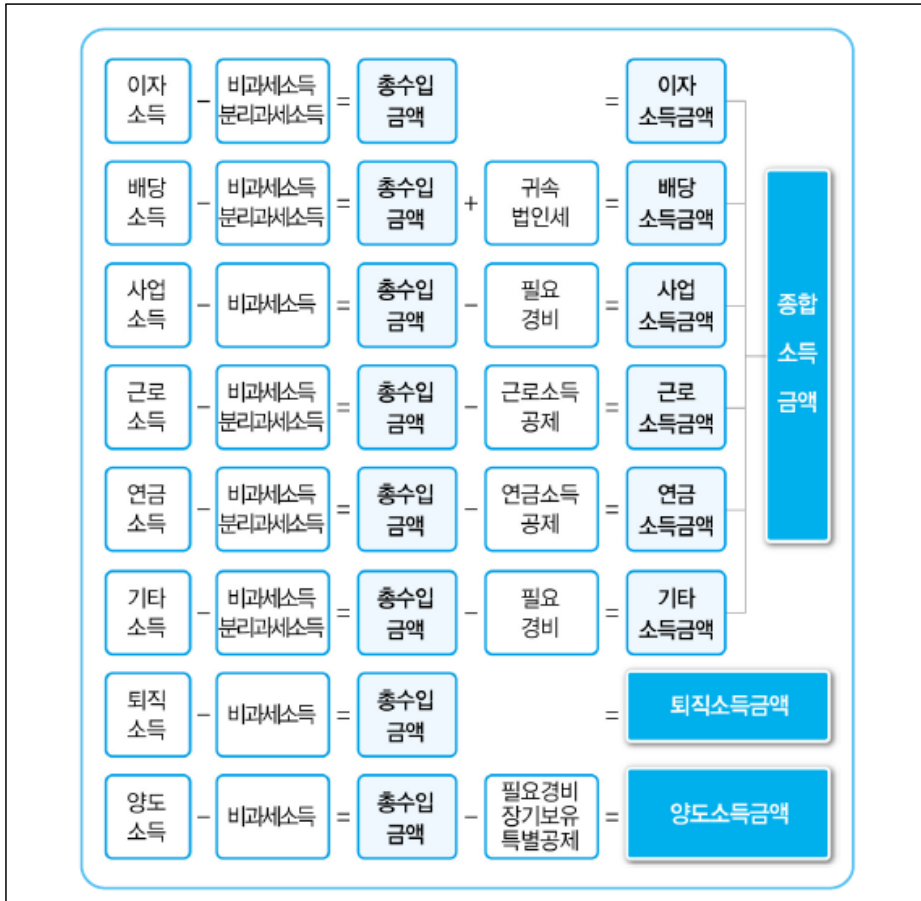
2.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2-1. 소득세 구분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가지이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소득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한 소득세를 생각해 보자. 산업연관표 또는 국민계정에 나타난 부가가치는 GDP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일정 기간에,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국민계정통계에는 생산, 지출, 자산 등 다양한 통계가 있지만 과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소득계정과 관련된 통계이다. 소득발생계정은 생산 활동으로 발생한 부가가치가 노동과 자본에 분배되는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노동에 분배되는 것은 피용자보수라고 불린다. 이러한 피용자보수는 산업연관표의 외생부문에 나타난 피용자보수와 동일하며, 해당 금액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림 5-1] 소득금액 계산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알기쉬운 조세제도」

〈표 5-14〉 2018년도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사용부문)

(단위: 조원)

구분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등	합계
파용자보수	563.5	40.9	128.6	135.1	868.1
순영업잉여	322.4	48.7	1.5	116.5	489.2
기타생산세	12.1	1.3	0.01	11.8	25.3
기타보조금	-3.2	-0.2	-0.003	-1.8	-5.2
고정자본소모	238.5	8.4	54.2	57.9	359.1
총부가가치	1,133.4	99.3	184.4	319.5	1,736.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 근로소득세

피용자보수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객이 종업원에 직접 지급한 각종 봉사료도 고용주가 수취한 다음에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금액은 소득세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봉사료처럼 현물급여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현금급여 이외에 창사 기념품처럼 현물 형태의 급여도 피용자보수에 포함된다. 피용자를 위한 각종 복지 관련 지출도 피용자보수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 함수를 생각해보자. 과세표준 $TI = \text{급여}(L) - \text{소득공제}(D)$ 이다. 여기서 급여는 봉사료, 현물급여, 각종 복지지출이 일부 제외된 금액이다.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가 되므로 t 는 법정 한계세율, B 는 과세구간으로 B_k 와 B_{k-1} 는 k 번째 과세구간의 끝과 시작점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1(\cdot)$ 는 (\cdot) 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을 의미하는 지표함수로 가정하자. 편의상 $1(B_k) = 1(B_{k-1} < TI_i \leq B_k)$, $1(B_{k-1}) = 1(TI_i \geq B_{k-1})$ 로 하자. 이 경우 특정 개인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즉, 과세표준과 세율구조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T_i = \sum_k 1(B_k) (TI_i - B_{k-1}) t_k + \sum_k 1(B_{k-1}) (B_{k-1} - B_{k-2}) t_{k-1} \quad (1)$$

$$= f(TI_i, t)$$

그리고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는 개인별 근로소득세의 합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소득과 세수를 일치시키는 세율이 존재한다. 즉, $LT/L = t_L$. 여기서 LT 는 근로소득세수, L 은 근로자의 전체 급여이다. 해당 세율은 결정세수를 급여로 나눈 평균 세율을 의미한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자료에 따르면 급여의 규모는 681.6조원, 결정세액은 38.3조원이므로 그 비율은 5.62%이다.

$$LT = \sum_i f(TI_i, t) = L t_L \quad (2)$$

〈표 5-15〉 평균소득세율(근로소득)

(단위: 조원, %)

급여	결정세액	비율
681.6	38.3	5.62

자료: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

관광과 관련된 개인의 소득세를 알려면 전체 소득세에서 관광소비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를 $LT(S)$ 라고 하자. 해당 규모를 알려면 먼저 관광소비가 유발하는 부가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해당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소득, 즉 피용자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부가가치(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관광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각종 공제 및 감면이 얼마인지를 개인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사용한 근로소득에 대한 평균세율, 즉 급여 대비 결정세액을 사용한다. 다만 피용자보수와 급여 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용자보수 대비 급여의 비율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근로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세수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text{근로소득세수} = \text{관광소비} *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피용자보수/GDP}$$

$$* \text{급여 비율 (급여 / 피용자보수)}$$

$$* \text{근로소득평균세율 (결정세액 / 급여)}$$

$$= \text{관광소비} *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근로소득세} / \text{GDP} \quad (3)$$

2018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국인 관광소비는 43.1 조원이다. 내국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52를 사용한다. 피용자보수는 868.1조원, GDP는 1,736.5 조원이므로 피용자 비율은 49.9%이다. 또한 급여는 681.6조원이므로 피용자보수 대비 급여의 비율은 78.5%이다. 여기에 앞에서 구한 평균세율 5.62%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는 8,099 억원이다.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소비를 적용하면 그 값은 332.5 백만 달러이다. 외국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5를 사용한다.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정 사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한국관광위성계정(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 한국의 내국인 관광산업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평균은 0.852
 - 한국의 외국인 관광산업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평균은 0.81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 관광부문 부가가치유발계수 평균은 0.8331
 - 부가가치유발계수 전산업 평균은 0.7308

〈표 5-16〉 근로소득세 효과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809.9 (10억원)	18.5 (10억 달러)	332.5 (백만 달러)

2-3. 종합소득세

다음으로 종합소득을 생각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용자보수는 가계에 분배가 되고, 영업잉여는 다시 가계와 법인에 분배가 된다. 가계는 피용자보수 이외에 소규모 자영업 등에서 영업잉여가 발생한다. 가계 및 비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 대신에 혼합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자영업의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의 영업잉여에 대한 세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피용자보수 대신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를 사용하면 된다. 가계의 영업잉여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116.5조원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므로 사업소득을 분리하여 세율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경우, 즉 2018년도 귀속분을 보면 전체 과세소득 213.7조원 중에서 사업소득이 107.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세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7〉 종합소득세 소득별 구성

(단위: 10억원)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213,714.0	2,526.0	15,252.3	107,251.8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9,572.4	68,338.2	732.2	2,574.3

주: 국세통계연보(2019) 표3-2-3를 토대로 계산한 것임.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은 31.8조원이므로, 평균세율은 14.9%이다.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많으므로 근로소득에 비하여 평균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소득의 평균세율이 종합소득의 평균세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표 5-18〉 평균소득세율 (종합소득)

(단위: 조원, %)

종합소득	결정세액	비율(%)
213.7	31.8	14.9

종합소득의 세수가 모두 사업소득의 세수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의 비율로 조정하여야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비율은 50.1%이다.

종합소득세수 = 관광소비 * 부가가치유발계수 * 가계의 영업잉여 / GDP

* 종합소득 비율 (종합소득 / 가계영업잉여)

* 종합소득평균세율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종합소득) * 사업소득비율 (사업소득 / 종합소득)

= 관광소비 * 부가가치유발계수 * 종합소득세 / GDP

* 사업소득비율 (사업소득 / 종합소득) (4)

결과적으로 내국인 관광소비와 외국인 관광소비가 자영업자 등의 세수로 귀결되는 규모는 각각 3,415 억원, 138.3 백만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9〉 종합소득세 효과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341.5 (10억원)	18.5 (10억 달러)	138.3 (백만 달러)

2-4. 사회보험료

피용자보수는 각종 사회보장과 관련된 피고용자 부담금도 일단 피용자보수로 계산하고, 피용자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고용주 부담금 및 정부 부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는 급여와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은 실제 사회부담금과 의제사회부담금으로 구분된다. 의제사회부담금은 기금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피용자보수는 사회보험료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

사회보험성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18년 결산기준으로 64.4조원이다(한국 재정정보원, 재정통계 BRIEF).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내국인 관광이 1.4조원의 보험료 증대 효과를 주고, 외국인 관광이 약 5.9억 달러의 보험료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다 준다.

$$\text{사업보험료} = \text{관광소비} *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사회보험료} / \text{GDP (5)}$$

〈표 5-20〉 사회보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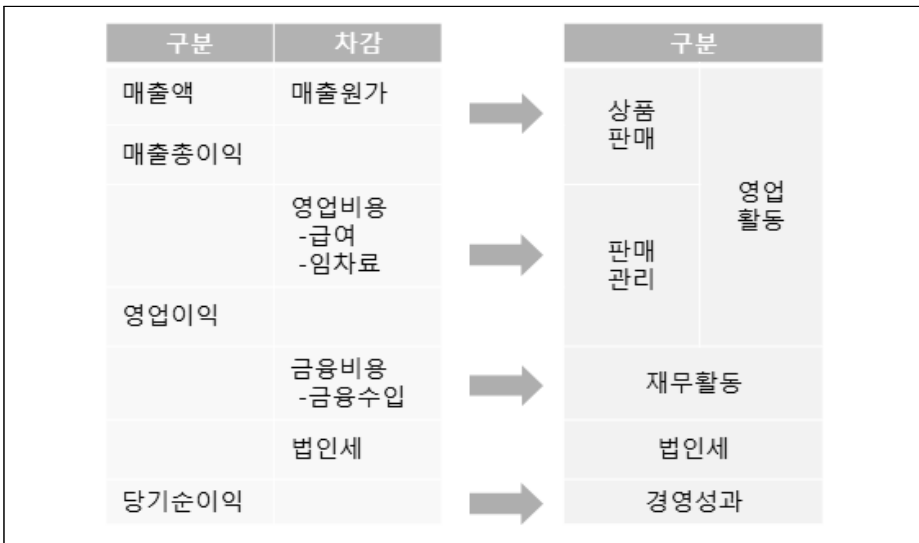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1.437 (조원)	18.5 (10억 달러)	590.4 (백만 달러)

3. 법인세

3-1. 산업연관표 이용

소득세는 소득 유형별로 과세를 하는 반면 법인세는 포괄적 소득, 즉 순자산 증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국민계정에는 법인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림 5-2] 법인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국민계정은 R&D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회계에서는 R&D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는 점이다. 국민계정이 국내의 소득에 집중하고 있다면 법인세는 전세계의 소득이 기준이 된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베이스와 국민계정의 영업잉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소득세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법인세수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2018년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국세통계에 나타난 법인소득은 239.4조원이다. 그리고 산출세액은 70.2조원이다.

법인세수 = 관광소비 * 부가가치유발계수 * 법인의 영업잉여 / GDP

* 법인소득 비율 (법인과세소득 / 법인의 영업잉여)

* 법인소득평균세율 (결정세액 / 법인과세소득)

= 관광소비 * 부가가치유발계수 * 법인세 / GDP (6)

결과적으로 내국인 관광소비로 인한 법인세수 효과는 약 1.484조원, 외국인 관광 소비로 인한 법인세수 효과는 약 6.1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관광소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분야의 법인세 평균세율이 다른 업종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평균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표 5-21〉 법인세수 효과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1.484 (조원)	18.5 (10억 달러)	609.5 (백만 달러)

3-2. 기업경영분석 자료 이용

또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추정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내국인 관광소비에 한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수 = 관광소비 *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 매출액)

* 순이익률 대비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순이익)

= 관광소비 * 법인세비용 / 매출액 (7)

숙박업, 여행사업 등의 경영실적 수치를 바탕으로 이를 연관업종으로 유추 적용하여 2018년 기준으로 위의 식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2〉 숙박업 등의 법인세비용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숙박업(1,814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8,508개)
법인세비용	62,838	36,693
매출액	7,840,200	5,156,681
순이익	-211,861	-192,271
법인세비용 비중 (법인세비용 / 매출액)	1.13%	0.89%

주: 2018년 기준

숙박업과 여행사업의 수치를 바탕으로 관광관련 업종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비용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1.2%라고 가정하면, 관광소비로 인한 법인세수는 0.517 조 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수치 1.484 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은 법인세수 추정은 매출액 보다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법인세는 매출액 보다는 부가가치와 상관성이 더 높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정하게 되면 과소 추정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4. 간접세 및 지방세

4-1. 산업연관표 이용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운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보조금 공제)로 구성된다. 여기서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실제로는 생산자가 이를 생산비에 포함하여 그 부담을 최종구입자에게 전가한다. 따라서 생산세는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된다. 생산세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수치를 순생산세라고 한다.

소득세에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간접세 및 지방세의 세수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간접세승수의 규모는 관광부문 간접세승수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0.086, 외국인에 대해서는 0.074를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한 간접세 규모는 내국인 관광소비의 경우에 약 3.7조원, 외국인 관광소비는 13.69억 달러로 나타났다.

$$\text{간접세 및 지방세} = \text{관광소비} * \text{간접세승수 (8)}$$

〈표 5-23〉 간접세 효과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3.706 (조원)	18.5 (10억 달러)	1.369 (10억 달러)

간접세수 중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수만을 별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산식 또한 부가가치 추정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018년 부가가치세 산출액은 70,009 십억원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부가가치세} = \text{관광소비} *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부가가치세} / \text{GDP (9)}$$

간접세승수 추정 사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한국관광위성계정(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 한국의 내국인 관광산업부문 간접세승수 평균은 0.086
 - 한국의 외국인 관광산업부문 간접세승수 평균은 0.074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2009년 산업연관표 기준』
 - 관광부문 간접세승수 평균은 0.1044
 - 간접세승수 전산업 평균은 0.0809

이렇게 계산한 부가가치세 규모는 내국인 관광소비의 경우에 약 1.48 조원, 외국인 관광소비는 6.07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 5-24〉 부가가치세 효과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내국인 관광 소비	세수	외국인 관광 소비	세수
43.1 조원	1.480 (조원)	18.5 (10억 달러)	0.607 (10억 달러)

4-2. 기업경영분석 자료 이용

또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추정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내국인 관광소비에 한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조세공과비율을 활용하여서도 간접세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다만 조세공과에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인지세 등의 세목만 포함되고 공과금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위의 산업연관표를 통한 추정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간접세 및 지방세} = \text{관광소비} * \text{부가가치유발계수} * \text{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 비율} \quad (10)$$

숙박업, 여행사업 등의 경영실적 수치를 바탕으로 이를 연관업종으로 유추 적용하여 2018년 기준으로 위의 식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5〉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 비율

(단위: %)

구분	숙박업(1,814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8,508개)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비율(2018년)	7.52%	2.64%

주: 2018년 기준

숙박업과 여행사업의 수치를 바탕으로 관광관련 업종의 부가가치 대비 조세공과비율을 평균 8.0%라고 가정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52를 사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관광소비로 인한 지방세수는 2.93 조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관표 간접세 승수를 활용한 수치 3.70 조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

당초 예상되었던 대로 조세공과에는 간접세 승수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세금이 일부 빠져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조세공과에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 인지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주요 간접세, 지방세가 빠져 있어서 간접세, 지방세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세수 기여도 추정

5-1. 세수 추계 종합

이상과 같은 세목별 추계를 합쳐보면 일부 직접세와 관세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전체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관광 소비가 발생할 경우 세수로 환수되는 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세수 기여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내국인 관광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세가 약 8천억원, 사업소득세가 약 3천억원, 사회보험료 약 1.4조원, 법인세 약 1.5조원, 간접세 약 3.7조원 등 전체적으로 약 7.8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사회보험료 포함).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발생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규모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간접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높고, 법인세와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다음으로 높으며,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조세입증 간접세 수입은 899,622억원, 지방세 수입은 843,183 억원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보면 관광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반반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소비의 경우도 동일한 비중 구조를 가지며, 전체적으로는 약 3,039백만 달러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000원 수준의 환율을 적용하면 약 3.04조원의 세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소비가 주는 세수 효과를 모두 합하면 약 10.8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세수 환수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내국인 관광소비가 약 43.1조원이고, 그에 따른 세수 수입이 약 7.8조원이므로 국내 관광 소비의 약 18%는 세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26〉 세수 추계 종합

구분	내국인 관광 부문 (10억원)	외국인 관광 부문 (백만 달러)
근로소득세	808.9	332.5
사업소득세	341.5	138.3
사회보험료	1,437.9	590.4

구분	내국인 관광 부문 (10억원)	외국인 관광 부문 (백만 달러)
법인세	1,484.4	609.5
간접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3,706.6 (1,480.2)	1,369.0 (607.7)
합계	7,779.3	3,039.7

5-2. 전체 세수에서의 비중과 업종간 비교

위의 추계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세목별 전체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관광지출에 따른 세수 수입에는 2018년 평균 원/달러 환율 1,000.3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기로 한다.

전체 조세 징수결정액과 비교한 결과, 관광지출에 따른 조세 수입은 전체 조세 수입의 2.91%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볼 때는 2.86%로 약간 낮아진다. 세목별 비중은 2.25%~2.98%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접세의 일부와 관세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체 조세 항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³¹⁾,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비중은 전체 세수 수입의 약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7〉 세수 기여도 추정 결과

(단위: 십억원, %)

구분	내국인 관광 소비 관련 조세수입	외국인 관광 소비 관련 조세수입	관광소비 관련 조세수입 합계	전체 조세 징수결정액	비중(%)
근로소득세	808.9	333.5	1,142.4	39,327.9	2.90
사업소득세	341.5	138.7	480.2	21,347.7	2.25
사회보험료	1,437.9	592.2	2,030.1	64,400.0	3.15
법인세	1,484.4	611.3	2,095.7	72,314.8	2.90
간접세와 지방세 (부가가치세)	3,706.6 (1,480.2)	1,373.1 (609.5)	5,079.7 (2,089.7)	174,280.5 (70,009)	2.91
합계	7,779.3	3,048.8	10,828.1	371,670.9	2.91

31) 추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직접세와 관세는 관광소비와 별로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관광 관련 세수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타 업종의 세수 비중과 비교해 보기 위해 국세청 국세통계를 이용하기로 한다. 다만 법인세 외에는 업종별로 세수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법인세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금융보험업, 건설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광업, 농림어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등이 매우 낮다. 업종별로는 편차가 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관광산업의 법인세 비중 2.90%는 운수창고·통신업의 비중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28〉 업태별 법인세 징수 비중(2018년)

업태	산출세액(십억원)	비중(%)
광업	95	0.13
농림어업	245	0.34
제조업	33,795	47.40
전기가스·수도업	1,786	2.50
건설업	7,150	10.03
도매업	5,361	7.52
소매업	1,631	2.29
음식·숙박업	244	0.34
운수·창고·통신업	2,106	2.95
금융·보험업	10,370	14.54
부동산업	2,528	3.55
서비스업	5,826	8.17
보건업	137	0.19
기타 업종	22	0.03
전체	71,302	100.00

주: 법인세 신고현황의 산출세액이므로 실제 납부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료: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

제3절 관광소비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설정

관광소비는 여러 세목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법인세에 한정하여 살펴보려는 것은 법인세가 대표적인 세금이기도 하고, 관광소비가 관광사업자의 법인세가 아닌 전체 법인세수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과세이어서 관광소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소득세는 여러 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종류 소득이 섞여있어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 또한 법인세가 사전 연구에 의해 설명변수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법인세수와 관련성을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석 작업은 관광소비가 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관광소비와 법인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법인세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동일하므로 소득세에서 사용한 세수 함수를 고려한다. 즉, 과세표준 $TI = \text{법인소득}(Y) - \text{소득공제}(D)$ 이다. 과세표준별로 누진 과세가 되므로 특정 기업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구조의 함수가 된다. 물론 각종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수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begin{aligned} T_i &= \sum_k 1(B_k) (TI_i - B_{k-1}) t_k + \sum_k 1(B_{k-1}) (B_{k-1} - B_{k-2}) t_{k-1} \quad (1) \\ &= f(TI_i, t) \\ T &= \sum_i f(TI_i, t) = Y t_Y \end{aligned}$$

법인의 과세소득의 규모는 관광소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즉, $Y = g(C)$ 라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T = h(C, t_Y)$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법인세수는 관광소비(C), 법인세 평균세율(t_Y) 등의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 평균세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법인소득은 관련 시계열 자료가 구하기 어려우므로 국민계정에 나타난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영향을 주는 요소로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을 추가한다. 시간 추이는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외한다.

2. 분석 결과

2-1. GDP 대입

가. 내국인 관광소비

먼저 로그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관광 소비의 계수가 -0.28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광소비가 1% 증가하면 법인세가 0.28% 감소한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관광소비와 법인세가 시계열 자료이므로 이러한 회귀분석이 가성회귀일 가능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위하여 Dickey-Fuller Test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검정값이 -3.17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로그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일 가능성이 높다.

〈표 5-29〉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ln_domestic	-2.2846332	.1220313	-2.33	0.038
ln_gdp	.6787497	.5282272	1.28	0.223
ln_price	2.334116	1.492766	1.56	0.144
t	5.026159	.9074753	5.54	0.000
_cons	-5.488778	.9095637	-6.03	0.000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3.173	-3.750	-3.000	-2.630

일반적으로 단위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차분한 값을 사용하여 추정을 하는 것이다. 추정된 결과를 보면 국내소비의 차분값이 법인세의 차분값에 주는 효과는 0.000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그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차분값이 의미하는 바는 관광소비 증가율이 1% 변하면 법인세의 증가율 변화가 0.0005%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관광소비 증가율의 변화가 법인세의 증가율에 주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가성회귀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값이 -3.38이며, 이는 5% 유의수준에서는 가성회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1% 유의수준에서는 단위근이 있다는 가설을 기각하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소비가 법인세수에 주는 영향은 알기가 어렵다. 법인세수에 대한 GDP의 설명력이 매우 높아서 관광소비가 낮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5-30〉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domestic D1.	.0004823	.0002244	2.15	0.057
gdp D1.	.022928	.024895	0.92	0.379
price D1.	1910.355	668.6517	2.86	0.017
t D1	184221.8	41771.6	4.41	0.001
_cons	-2866.28	2315.796	-1.24	0.244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3.380	-3.750	-3.000	-2.630

주: domestic은 국내관광소비, price는 물가상승률 변수

나. 외국인 관광소비

외국인 관광소비 규모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GDP 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종가기준 평균환율을 적용하였다. 먼저 로그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도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1〉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ln_foreign	-.0637766	.0691562	-0.92	0.365
ln_gdp	1.818817	.2952721	6.16	0.000
ln_price	-1.406191	.8144615	-1.73	0.096
t	4.1789166	.8852131	4.72	0.000
_cons	-7.788383	.9625886	-8.09	0.000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1.819	-3.716	-2.986	-2.624

주: foreign은 외국인 관광소비, price는 물가상승률 변수

차분한 값을 사용한 추정 결과를 보면 외국인 관광소비의 계수는 0.0005로 나타나고 있다. 로그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차분값의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 관광소비 증가율이 1% 변하면 법인세의 증가율이 0.0005%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즉, 관광소비 증가율의 변화가 법인세의 증가율 변화에 주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이다.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도 단위근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회귀가 아니라 시계열 자료가 공적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foreign D1.	.0004729	.0002321	2.04	0.052
gdp D1.	.05814	.0252908	2.30	0.030
price D1.	351.9842	489.6648	0.72	0.479
t D1	107148	24596	4.36	0.000
_cons	-2454.689	2055.472	-1.19	0.244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4.381	-3.723	-2.989	-2.625

2-2. 영업잉여 대입

가. 내국인 관광소비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소비가 법인세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GDP 대신에 법인세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인의 영업잉여를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한다.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국민계정에는 금융법인과 비금융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로그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관광소비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값이 -3.737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없다는 것을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표 5-33〉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ln_domestic	-.0147788	.0253905	-0.58	0.571
ln_firm_y	1.028031	.0513114	20.04	0.000
ln_price	-.085912	.2256636	-0.38	0.710
t	5.473507	.1493548	36.65	0.000
_cons	-2.418815	.1627007	-14.87	0.000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3.737	-3.750	-3.000	-2.630

주: firm_y은 영업잉여 변수

단위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변수를 차분한 값을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GDP를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와는 달리 국내 관광소비의 증가가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계수는 0.00036으로 크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소비가 법인세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인영업잉여와 평균세율의 계수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세는 법인영업잉여와 세율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도 검정값이 -4.528로 나타나 단위근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차분을 이용한 추정방식이 가성회귀가 없는 적절한 회귀분석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관광소비가 관광사업자의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 이전에도 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법인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34〉 국내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차분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domestic D1.	.0003624	.0000819	4.42	0.001
firm_y D1.	.1580012	.0191856	8.24	0.000
price D1.	172.2046	322.3115	0.53	0.605
t D1	239691.6	16706.82	14.35	0.000
_cons	-471.8093	499.9223	-0.94	0.368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4.528	-3.750	-3.000	-2.630

나. 외국인 관광소비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소비를 살펴본다. 추정 결과를 보면 외국인 관광소비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지만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잔차에 대한 검정에서도 단위근이 없다고 나타나므로 외국인 관광소비와 법인세수는 장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의성이 낮으므로 외국인 관광소비가 법인세에 주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35〉 외국인 관광소비의 법인세 효과 (로그값 사용, 기업 영업잉여 사용)

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 t
ln_foreign	-.0121202	.0113319	-1.07	0.295
ln_firm_y	1.023703	.0209808	48.79	0.000
ln_price	-.0405742	.0792765	-0.51	0.613
t	5.842621	.1329406	43.95	0.000
_cons	-2.688036	.0806552	-33.33	0.000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Interpolated Dickey-Fuller				
	Test Statistic	1% Critical Value	5% Critical Value	10% Critical Value
z(t)	-6.876	-3.716	-2.986	-2.624

전체적인 회귀분석의 결과는 국내 관광소비나 외국인 관광소비가 법인세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편미분 값이다. 즉, 세수 함수가 $T = h(C, t_Y)$ 라면 계수는 $\beta = \partial T / \partial C$ 라고 표현된다. 즉, 다른 설명변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광소비가 법인세에 주는 영향이다.

그러나 관광소비가 다른 설명변수인 GDP나 법인 영업잉여에 영향을 주므로 회귀분석의 경우처럼 관광소비가 증가하였지만 GDP나 법인 영업잉여가 변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관광소비가 직접적으로 법인세수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경제 순환과정을 볼 때 간접적으로 산업 전체의 법인 영업잉여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1. 소비촉진 효과

여행 소비 촉진을 하면 여행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여행소비가 다른 항목의 소비도 촉진해서 전체 소비가 단기적으로라도 증가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여행을 통한 소비자의 소비심리 변화이다. 소득의 변화가 없이도 소비 심리의 변화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다른 소비항목의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벡터자기회귀모형(VAR), 회귀분석 등에 의해 선행관계, 시차, 인과성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관광소비가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관광소비2(음식 및 숙박 서비스)가 관광외 소비에 그랜저 인과 하는데 그 역의 관계는 비유의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관광소비2가 관광외소비에 선행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관광소비1(오락, 스포츠, 문화), 관광소비2(음식점, 숙박) 모두 관광외 소비에 매우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소비1의 영향은 동기간뿐만 아니라, 1기와 2기의 시차를 두고 관광외 소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관광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기, 전기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모두 국내 소비지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의 1% 증가시 동기간 국내 소비지출은 약 0.0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세수 기여도

관광소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목은 다양하다. 소득세, 법인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에도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사실상 세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관광소비가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광소비에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곱하여 부가가치 창출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각종 세금 징수실적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세수 규모를 세목별로 추정하였다. 한편 산업연관표 외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추정을 법인세, 간접세 및 지방세 등에서 병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어느 정도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전체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관광소비가 발생할 경우 세수로 환수되는 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산업의 세수 기여도로 이해할 수 있다.

추계 결과, 내국인 관광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세가 약 8천억원, 사업소득세가 약 3천억원, 사회보험료 약 1.4조원, 법인세 약 1.5조원, 간접세 약 3.7조원 등 전체적으로 약 7.8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추정되었다.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수 발생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인 관광소비의 경우는 약 3,039 백만 달러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관광소비가 주는 세수 효과를 모두 합하면 약 10.8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내 세수 환수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내국인 관광소비가 약 43.1조원이고, 그에 따른 세수 수입이 약 7.8조원이므로 국내 관광 소비의 약 18%는 세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세목별 전체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관광지출에 따른 조세 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볼 때는 2.86%로 약간 낮아진다. 직접세의 일부와 관세 등이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광산업이 부담하는 세수의 비중은 전체 세수 수입의 약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관광관련 세수 규모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활용 및 통계 개선

1-1.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는 관광이 소비 촉진과 세수 증가에 어떻게 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분석 결과는 관광의 기능,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행 소비쿠폰, 여행바우처 등 여행 소비 촉진 관련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 분석방법의 설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행 소비 자체의 증가 외에도 다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전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몇몇 관련 통계, 분석 수치 등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의 세수 효과는 관광산업이 여러 업종에 걸쳐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관광소비 지출을 바탕으로 세목별, 전체 세수규모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소비 지출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이 전체 조세수입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세수 기여도와 세수 환수 효과는 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조세 당국을 설득하는데 주요 근거 자료가 된다. 아직도 관광부문에 조세 감면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관광산업의 세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본 연구 결과가 활용된다면 조세 감면 도입의 타당성을 높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여행의 소비촉진 효과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한데에 의미가 있다. 관광의 전체적인 세수 규모를 추계한 것도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어서 우선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를 통해 가

설이 적정한지,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계를 바탕으로 한 거시적인 분석에 치중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검증과 특정 사례(case study)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인 분석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세수 관련해서는 관광사업자의 법인세 비용, 조세공과 자료 등 개별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결과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통계 개선

향후 소비 및 조세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관련 통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여행조사의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는 연도별로만 발표되고 있는데 분기별로도 구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른 외부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발표 주기와 자료 형식을 일치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국내여행지출액 수치가 분기별로 발표되어야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최종소비지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관광사업체조사에서는 사업체 운영 현황에서 조세와 부담금 납부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조세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사업소득),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주요 조사항목이 될 수 있고, 부담금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조사항목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거래소 등록기업, 외감대상 기업, 기타 등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광사업자가 충분히 등록되어 있지 않고, 감사보고서만으로는 조세 납부 현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한편, 관광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조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세감면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상품의 공급 및 수요의 가격탄력도, 조세의 관광상품 가격상승 효과, 관광분야에서의 조세의 전가와 귀착, 관광분야 조세감면의 비용편익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발굴 및 고려사항

2-1. 관광 소비 촉진 관련

관광소비 촉진 및 국내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은 내수 창출, 국민 복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민들의 국내관광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행복, 관광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내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조, 할인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행 관광기금 보조사업은 관광사업자,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 적다는 의견이 부담금 평가, 기금 존치평가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행 바우처 외에 별도의 여행소비 할인 쿠폰 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비상시기의 할인 쿠폰 발행과는 별개로 여행적금에서의 할인 대상 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행적금 시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행적금에서는 만기에 여행 쿠폰을 발행하며,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도 있고, 제휴사 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할인 대상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입장 할인, 공공부문에서 기획한 콘서트 티켓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여행적금의 혜택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행 바우처는 여가 취약계층의 관광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소득층에서 노년층 등으로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가 통합되어 있어서 여행활동의 선택 비율이 저조한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서구입이나 영화, 공연 등 일부 문화 항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하다. 당초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예전의 형태로 여행이용권 사업만을 독립시켜 별도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서 다양한 용도를 제시하여 도서문화상품권 구입이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관광상품권의

경우에는 모호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개정을 통해 관광 용도의 지출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놓아야 한다.

현재는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만 인정되고 있어서 관광 측면에서는 비용 인정의 범위가 협소하다. 관광활동비의 범주 설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숙박 비용, 여행상품구입 비용 등으로 비용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관광상품권의 구입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관광상품권 구입의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2. 조세 감면 관련

그간 관광부문에 조세감면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중심의 조세 지원 제도가 점차적으로 서비스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 포함,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특정산업에 우호적인 측면이 완화되고 산업간 차이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서비스업 성격의 관광 산업에는 차별적 요소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 종합휴양업종의 재산세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관광업종 부동산 과다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감면 요구가 높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세법 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 소비 촉진과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 중에서도 현재 관광부문에 논의되고 있거나 적용되고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비용 소득공제와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그것이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내여행 숙박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내여행 숙박비 신용카드 사용액 3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를 대상으로 한다. 도서구입비, 공연비 연간 공제 한도 100만원에 숙박비도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에서 도입 반대 결과가 나왔다³²⁾. 비용 대비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고, 관광숙박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불분명하며, 자영업자가 혜택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적용 대상 및 기준을 달리하여 효과를 재분석할 필요가 있고, 도서구입비, 공연비와는 별도로 구분하는 가운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조건을 달리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전에도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었는데, 2014년부터 사후환급 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모든 관광호텔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호텔의 신청을 받아서 특례호텔로 지정하고 특례호텔의 숙박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대비 판매객실 평균요금(ADR) 10%를 초과하면 특례호텔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후환급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호텔이 많지 않아서 효과는 영세율 적용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전 환급이 아닌 사후 환급이므로 숙박객 중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만 받게 된다. 재화가 아닌 용역에 대해 사전 면세가 아닌 사후환급을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통상 사후 환급은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서비스 용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금인상에 제한을 두는 것도 생산자의 조세 부담 전가가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나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사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줘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후 환급이 아닌 예전과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참고문헌

- 강이주·신자빈(2006). “소비성향에 따른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9(4). pp.83-103
- 고동우, 김소윤(2011), 프레임에 따른 일상과 관광의 소비지출행동 비교, 『관광학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90), pp. 259~277
- 고동우·부소영(2001), 기획축제 참가자의 소비지출 기제 탐색, 『소비자광고』
- 국세청(2018), 『국세통계연보』
- 국회예산정책처(2012), 『알기쉬운 조세제도』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김근수(2006), 『여행업, 호텔업, 골프장업, 외식업의 경영매뉴얼』
- 김기영·백종온(2010),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감정반응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6(3). pp.147-160
- 김대용·서정원(2020),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20년 2월호
- 김빛마로(2021),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신호(2011),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1_ 소득과 소비』, 통계청
- 김태희·이승하·박홍연(2006). “외식 소비성향에 따른 소비자 유형 분석”, 『관광연구저널』. 20(3). pp.313-323
- 김학수(2013), 『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학수(2014),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명소형(2016). “소비가치에 따른 브랜드 장르의 소비성향이 제품선택속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카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 박명호·정재호(2014),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종규(2009),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소국섭(2009). 골프이벤트관광 지출수요 및 방문객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3(4), 427-446
- 유승각(2011), 관광 만족도와 소비지출과의 관계 분석 연구, 관광레저연구 23(2), 2011.02, 5-24
- 이미혜(2018). “크루즈관광객의 소비가치와 소비성향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2(4). pp.1167-1186
- 이채은(2011). “외국인 고객의 소비성향에 따른 호텔선택 결정속성의 차이분석”. 『관광연구』. 26(1). pp.311-330
- 이태희·배은성(2009). 관광쇼핑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기성, 감각추구성향, 쾌락적 쇼핑성향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6), 15-35
- 이희찬 (2002), “축제참가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Tobit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26(1), 31-46
- 주소현, 차경옥, 김민정, 김소연(2020), “한국 가계의 지출구조 변화(1990~2018) : 렉시스 다이어그램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3권 4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체육관광위성계정 구축방안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관광위성계정(TSA)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 한국은행(2017), 『2015년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20), 『기업경영분석』
- Bernini, C., & Cracolici, M. F.(2015), Demographic Change Tourism Expenditure & Life Cycle Behavior, *Tourism Management* 47, 191-205
- Newey, Whitney K. and Kenneth D. West, 1986, A simple, positive semi-definit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conometrica*, 55(3), 703-708
- Yeaman, I., Schanzel, H., & Smith, K.(2013), A Sclerosis of Demography : How Ageing Populations Lead to the Incremental Decline of New Zealand Tourism,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9(2), 93-103

ABSTRACT

A Consumption Attributable to Tourism Activities and Contribution of it to an Increase in Tax Revenue of Government

Heesoo Kim

It has considerably significance to prove that a boost in an expenditure consumption of other sectors through travel consumption would cause an entire domestic consumption in the short period. A change in consumer trial can have an influence on decision for other consumption of expenditure during the short term.

This study focuses on providing an econometric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ravel consumption of tourists on behaviors of their other expenditure of se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ecedent and behavior, time difference of period, causality, etc through a Vector AutoRegressive Model(VAR), a Regression Analysis.

Firstly, in terms of an impact of tourism consumption on other consumption of purposes, a granger causality test by VAR model is concluded tourism consumption2(food and accomodations) is preceded by extra-tourism consumption and acted as a causal variabl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is shown both tourism consumption1 (entertainment, sports, culture) and tourism consumption2(food and accomodations) have very positive effect on extra-tourism consumption, especially, tourism consumption1 has a positive impact on other expenditure consumption except for tourism all in the same period or period1 and 2.

Th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ffects of tourism consumption on overall expenditure of consumption leads to the positive impact of national domestic expenditure of travel in both current period and previous period on domestic expenditure of consumption. An increase of 1% of national domestic expenditure of travel means the 0.2% increase in overall domestic expenditure.

Secondly, tourism consumption can have a casual relationship with various tax items-income tax, corporation tax, indirect tax including value-added tax and further social insurance premium including health insurance premium. This study also is to analyze how much tourism consumption would affect income tax, corporation tax, indirect tax and more based on Input-Output(I/O) Tables.

We estimated the total value added amount by tourism consumption multiplying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 and estimated each revenue of tax item by the relevant share of tax revenue for GDP. Besides I/O Tables, we also estimated corporation tax, indirect tax and more by using an analysis data for corporate management by the Bank of Korea. we can thus figure out the contribution of tourism sector to government tax revenue.

In conclusion, for national tourism consumption, we estimate the effects of total tax revenue of about 7.8trillion won- each 300billion won of the earned income tax, 1.5trillion won of corporation tax, 3.7trillion won of indirect tax(1.5trillion won of value-added tax) approximately. For foreign tourists' consumption, it is estimated to have total tax revenue of about 3.039billion dollars. Hence, it is shown that total tax revenue by national and foreign consumption would be 10.8trillion won.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ffects of tax revenue of domestic national tourism consumption, approximate 18% effects of tax revenue(7.8trillion won) would be attributable to about 43.1trillion won of national tourism consumption.

Based on the above-mentioned estimates, tax revenue from tourism expenditure accounts for 2.91% of total tax revenue of sector(2.86% except for social insurance premium). In other words, we estimates tourism sector-related tax represents about 3% of overall government tax revenue but a part of direct tax, customs, etc. We need to estimate the amount and effects of tourism-related tax in a wide of various ways.

Keywords

Consumption Effects of tourists, Tax Revenue in Tourism Sector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부록

설문지

여행 소비지출 성향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하의 여행 소비지출에 대한 성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조사담당 : 김희수 연구위원(02-2669-846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인구통계학적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연령대는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대 이상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문 1】 귀하는 최근 3개월(2021년 5월1일~7월31일) 동안 숙박 여행과 당일 여행을 합쳐서 국내 여행을 대략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_ 회)

【문 2】 귀하의 여행 관련 지출이 귀하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약간 낮다 ③ 보통 ④ 약간 높다 ⑤ 매우 높다

【문 3】 여행을 경험한 후 귀하의 심리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행활동은 장래 소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 평소 생활에서 보다 관광지에서는 구매상품 가격에 신경을 덜 쓴다	①	②	③	④	⑤
• 여행시에는 평소 보다 상품에 대한 소비 심리가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 여행 후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도 소비충동이 지속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평소 여행과 관련된 귀하의 소비지출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문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소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소비를 할 때 가격만큼 가치가 있는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 여행 숙소를 정할 때 여러 숙소들을 비교한 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소비는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필요한 때가 아니면 호텔이용을 자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 호텔을 이용할 때 형편에 적절한가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새롭게 눈에 띄는 상품을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고가상품을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 상품 구매시 브랜드 명을 신경 쓴다	①	②	③	④	⑤
• 가끔은 충동적으로 구매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호텔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5】 국내 여행활동이 귀하의 전체적인 소비지출의 증가에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6】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귀하의 여행 소비 외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 7】 (문 6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많아질수록,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항목을 다음 보기 중 2개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보기

①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② 주류 및 담배 ③ 의류 및 신발 ④ 가정용품(가구, 가전, 주방용품 등) ⑤ 의료비(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⑥ 교통비 ⑦ 통신비 ⑧ 교육비

【문 8】 정부로부터 여행소비쿠폰이 제공된다면, 귀하의 여행 관련 소비와 전체 소비지출 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항목	줄어든다	변화 없다	늘어난다
여행 관련 소비	①	②	③
전체 소비지출	①	②	③

【문 9】 귀하는 여행활동의 증가로 인해 과소비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편입니까?

① 여행횟수를 줄인다 ② 여행시 소비지출을 줄인다 ③ 여행 외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을 줄인다 ④ 금융기관 대출을 늘린다 ⑤ 저축을 줄인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 결과(교차분석표)

문1	귀하는 최근 3개월(2021년 5월1일~7월31일) 동안 숙박 여행과 당일 여행을 합쳐서 국내 여행 을 대략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	---

구분	사례수(명)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평균
전체	(500)	22.4	25.4	26.9	16.3	3.5	5.4	(1.74)
성별	남성 (248)	14.0	27.6	21.4	27.4	3.7	6.0	(2.02)
	여성 (252)	30.7	23.3	32.4	5.5	3.3	4.8	(1.46)
연령	20대 (79)	7.4	8.6	8.0	57.0	7.5	11.5	(2.90)
	30대 (76)	13.2	24.6	37.5	14.2	1.8	8.6	(2.00)
	40대 (96)	19.7	35.8	18.3	12.1	5.5	8.5	(1.80)
	50대 (101)	11.9	40.8	36.4	5.9	4.1	1.0	(1.53)
	60대 이상 (148)	44.0	17.5	30.8	5.6	0.7	1.5	(1.08)
가구 소득	수도권 (256)	26.8	21.9	18.6	24.1	4.1	4.6	(1.75)
	충청권 (58)	11.5	18.2	60.6	7.5	0.4	1.8	(1.73)
	경상권 (131)	13.7	35.3	33.2	5.4	5.1	7.3	(1.82)
	전라권 (42)	38.4	19.3	11.7	19.4	0.0	11.3	(1.60)
	강원 (10)	12.0	49.9	34.0	0.0	4.0	0.0	(1.34)
	제주 (3)	48.8	34.4	0.0	16.7	0.0	0.0	(0.85)

문2	귀하의 여행 관련 지출이 귀하의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구분		사례수 (명)	낮음			보통	높음		계	평균 (5점)	
			매우 낮 음	약간 낮 음	약간 높 음		매우 높 음				
전체		(500)	21.0	13.3	34.3	45.4	18.6	1.8	20.3	100.0	(2.67)
성별	남성	(248)	9.2	16.9	26.0	42.6	28.5	2.8	31.4	100.0	(2.99)
	여성	(252)	32.6	9.8	42.4	48.1	8.7	0.7	9.4	100.0	(2.35)
연령	20대	(79)	4.5	6.3	10.8	24.7	64.0	0.6	64.5	100.0	(3.50)
	30대	(76)	14.2	19.9	34.1	40.2	23.9	1.8	25.6	100.0	(2.79)
	40대	(96)	13.3	17.2	30.6	49.3	13.6	6.5	20.1	100.0	(2.83)
	50대	(101)	32.3	14.1	46.4	48.2	5.4	0.0	5.4	100.0	(2.27)
	60대 이상	(148)	30.4	10.7	41.1	54.6	3.7	0.5	4.3	100.0	(2.33)
가구 소득	수도권	(256)	21.7	13.3	34.9	36.4	26.7	2.0	28.7	100.0	(2.74)
	충청권	(58)	6.5	6.2	12.7	74.7	11.2	1.4	12.6	100.0	(2.95)
	경상권	(131)	28.4	17.0	45.4	44.4	8.6	1.5	10.2	100.0	(2.38)
	전라권	(42)	13.4	7.4	20.8	61.2	16.1	1.9	18.0	100.0	(2.86)
	강원	(10)	20.3	33.3	53.7	46.3	0.0	0.0	0.0	100.0	(2.26)
	제주	(3)	23.4	13.4	36.8	63.2	0.0	0.0	0.0	100.0	(2.40)

문3	여행을 경험한 후 귀하의 심리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	--

구분		사례수 (명)	장래 소득에 대한 걱정을 잊게 해줌	관광지에서는 구 매상품 가격에 신 경을 덜 씀	여행시에는 소비 심리가 높아짐	여행 후에도 소비 충동이 지속됨
전체		(500)	3.18	3.39	3.64	2.72
성별	남성	(248)	3.27	3.38	3.43	2.88
	여성	(252)	3.08	3.39	3.85	2.56
연령	20대	(79)	3.17	3.66	3.42	3.34
	30대	(76)	3.35	3.35	3.61	2.70
	40대	(96)	3.20	3.33	3.46	2.92
	50대	(101)	3.63	3.89	4.09	2.24
	60대 이상	(148)	2.77	2.96	3.57	2.59
가구 소득	수도권	(256)	3.02	3.17	3.41	2.82
	충청권	(58)	3.11	3.66	4.39	3.43
	경상권	(131)	3.57	3.74	3.92	2.30
	전라권	(42)	3.06	3.36	3.19	2.53
	강원	(10)	2.80	3.03	3.29	2.35
	제주	(3)	3.17	3.03	3.62	2.76

문4	평소 여행과 관련된 귀하의 소비지출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

구분		사례수 (명)	소비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 는 편	소비를 할 때 가격대비 가치를 살펴 봄	여행숙소를 정할 때 여러 숙소를 비교 후 이용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소비는 하지 않음	필요한 때가 아니면 호텔이용을 자제함	호텔을 이용 할 때 형편에 적절한가를 생각함
전체		(500)	3.65	4.00	3.87	3.79	3.62	3.95
성별	남성	(248)	3.68	3.97	3.76	3.83	3.63	3.91
	여성	(252)	3.62	4.03	3.97	3.75	3.61	3.99
연령	20대	(79)	3.25	3.75	3.42	3.76	3.08	3.70
	30대	(76)	3.72	4.00	4.06	3.80	3.60	3.79
	40대	(96)	3.73	3.94	3.89	3.70	3.64	3.93
	50대	(101)	3.43	4.02	3.95	3.61	3.41	3.91
	60대 이상	(148)	3.92	4.16	3.94	3.97	4.04	4.21
가구 소득	수도권	(256)	3.67	3.93	3.81	3.94	3.55	3.90
	충청권	(58)	3.88	4.47	3.87	3.18	3.96	4.51
	경상권	(131)	3.39	3.86	3.94	3.63	3.45	3.81
	전라권	(42)	3.83	4.13	3.95	4.10	4.07	3.89
	강원	(10)	4.22	4.29	4.06	4.21	3.76	4.20
	제주	(3)	4.07	4.20	3.82	3.87	3.89	3.90

구분		사례수 (명)	새롭게 눈에 띄는 상품을 선택하는편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고가 상품을 구매	상품 구매 시 브랜드 명을 신경 씀	가끔은 충동적으로 구매함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 호텔을 선택함
전체		(500)	3.32	2.51	2.92	3.20	2.58
성별	남성	(248)	3.24	2.93	3.22	3.13	2.69
	여성	(252)	3.39	2.10	2.62	3.26	2.48
연령	20대	(79)	3.10	3.31	2.80	3.75	2.97
	30대	(76)	3.22	2.57	2.96	2.69	2.85
	40대	(96)	3.24	2.82	3.33	3.43	2.86
	50대	(101)	3.36	2.06	2.89	3.55	2.25
	60대 이상	(148)	3.50	2.17	2.71	2.77	2.29
가구 소득	수도권	(256)	3.32	2.66	2.86	2.95	2.55
	충청권	(58)	3.66	2.90	3.65	4.18	3.49
	경상권	(131)	3.25	2.16	2.79	3.47	2.36
	전라권	(42)	3.14	2.39	2.65	2.60	2.30
	강원	(10)	2.77	1.69	2.83	2.70	2.16
	제주	(3)	3.30	2.88	3.20	3.04	2.78

문5	국내 여행활동이 귀하의 전체적인 소비지출의 증가에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비동의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계	평균 (5점)
전체		(500)	8.1	13.5	21.6	28.5	46.4	3.6	50.0	100.0	(3.24)
성별	남성	(248)	1.4	11.1	12.5	25.3	55.9	6.3	62.1	100.0	(3.54)
	여성	(252)	14.7	15.8	30.4	31.6	37.1	0.9	38.0	100.0	(2.94)
연령	20대	(79)	0.0	4.0	4.0	13.2	82.3	0.6	82.8	100.0	(3.79)
	30대	(76)	0.7	10.5	11.2	31.0	57.4	0.4	57.7	100.0	(3.46)
	40대	(96)	0.9	9.6	10.5	28.0	48.4	13.1	61.5	100.0	(3.63)
	50대	(101)	0.4	32.9	33.3	41.4	23.6	1.7	25.3	100.0	(2.93)
	60대 이상	(148)	26.1	9.3	35.4	26.8	35.9	1.8	37.7	100.0	(2.78)
가구 소득	수도권	(256)	15.2	7.2	22.4	20.8	51.3	5.5	56.8	100.0	(3.25)
	충청권	(58)	1.2	1.6	2.8	18.2	77.6	1.4	79.0	100.0	(3.76)
	경상권	(131)	0.3	28.1	28.3	38.8	31.9	0.9	32.8	100.0	(3.05)
	전라권	(42)	0.0	15.5	15.5	53.1	27.5	4.0	31.5	100.0	(3.20)
	강원	(10)	5.0	46.3	51.4	35.6	13.0	0.0	13.0	100.0	(2.57)
	제주	(3)	0.0	0.0	0.0	65.6	34.4	0.0	34.4	100.0	(3.34)

문6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귀하의 여행 소비 외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까?									
----	---	--	--	--	--	--	--	--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비동의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의	계	평균 (5점)
전체		(500)	1.9	23.3	25.2	34.2	37.5	3.1	40.6	100.0	(3.17)
성별	남성	(248)	3.5	13.2	16.7	32.8	45.3	5.2	50.5	100.0	(3.35)
	여성	(252)	0.4	33.2	33.6	35.6	29.8	1.0	30.9	100.0	(2.98)
연령	20대	(79)	0.0	8.0	8.0	21.8	69.1	1.1	70.2	100.0	(3.63)
	30대	(76)	6.4	8.5	14.9	45.6	32.8	6.7	39.5	100.0	(3.25)
	40대	(96)	0.9	12.9	13.8	32.5	46.1	7.6	53.7	100.0	(3.47)
	50대	(101)	0.4	38.0	38.4	42.0	19.7	0.0	19.7	100.0	(2.81)
	60대 이상	(148)	2.4	35.7	38.1	30.7	29.7	1.5	31.1	100.0	(2.92)
가구 소득	수도권	(256)	1.5	25.4	26.9	30.2	38.8	4.2	42.9	100.0	(3.19)
	충청권	(58)	1.2	3.3	4.5	22.2	71.8	1.4	73.2	100.0	(3.69)
	경상권	(131)	0.3	32.1	32.3	41.6	24.2	1.9	26.1	100.0	(2.95)
	전라권	(42)	10.4	6.0	16.4	51.0	29.1	3.6	32.6	100.0	(3.09)
	강원	(10)	5.0	45.6	50.7	34.0	15.3	0.0	15.3	100.0	(2.60)
	제주	(3)	0.0	11.0	11.0	47.8	41.1	0.0	41.1	100.0	(3.30)

문7	국내 여행 관련 소비지출이 많아질수록,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항목을 다음 보기 중 2개만 선택해 주세요.
----	--

구분		사례수 (명)	의류 및 신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교통비	의료비	주류 및 담배	가정용품	교육비
전체		(203)	44.7	26.9	17.5	5.6	3.3	1.4	0.6
성별	남성	(125)	39.9	27.4	19.6	7.6	4.5	0.7	0.3
	여성	(78)	52.4	26.2	14.0	2.5	1.4	2.4	1.0
연령	20대	(56)	79.6	6.5	12.3	0.8	0.8	0.0	0.0
	30대	(30)	27.0	35.8	17.2	15.4	0.9	0.9	2.7
	40대	(51)	7.4	55.7	19.7	10.5	2.1	4.5	0.0
	50대	(20)	5.8	35.8	30.9	0.0	24.7	1.0	1.8
	60대 이상	(46)	72.4	9.8	15.6	2.1	0.0	0.0	0.0
가구 소득	수도권	(110)	47.6	27.9	13.3	5.3	5.3	0.6	0.0
	충청권	(43)	76.9	13.7	3.0	2.9	0.5	2.9	0.0
	경상권	(34)	8.8	37.2	50.6	0.0	0.0	0.0	3.4
	전라권	(14)	12.4	28.9	15.1	31.8	5.2	6.6	0.0
	강원	(2)	26.1	73.9	0.0	0.0	0.0	0.0	0.0
	제주	(1)	56.9	26.8	16.3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명)	의류 및 신발	교통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 용품	의료비	주류 및 담배	교육비	통신비
전체		(203)	56.3	48.7	43.4	31.3	9.3	8.2	1.6	1.3
성별	남성	(125)	53.6	35.2	45.0	45.3	10.2	9.6	0.3	0.8
	여성	(78)	60.6	70.4	40.7	8.8	7.9	5.8	3.6	2.2
연령	20대	(56)	81.2	13.9	19.6	79.6	2.4	2.4	0.0	0.8
	30대	(30)	50.2	42.8	57.6	22.4	19.5	4.8	2.7	0.0
	40대	(51)	22.4	53.0	71.4	12.6	19.8	14.5	3.9	2.4
	50대	(20)	37.2	43.6	74.5	12.5	3.0	27.5	1.8	0.0
	60대 이상	(46)	76.0	91.8	18.2	7.8	2.1	1.9	0.0	2.1
가구 소득	수도권	(110)	60.8	27.3	40.6	51.7	6.7	11.0	0.7	1.3
	충청권	(43)	80.6	83.3	16.7	4.5	6.5	2.5	2.9	2.9
	경상권	(34)	25.4	77.4	74.4	3.6	9.3	6.5	3.4	0.0
	전라권	(14)	21.8	39.3	69.2	26.1	37.0	6.6	0.0	0.0
	강원	(2)	52.3	26.1	73.9	0.0	26.1	21.6	0.0	0.0
	제주	(1)	56.9	100.0	26.8	0.0	16.3	0.0	0.0	0.0

문8	정부로부터 여행소비쿠폰이 제공된다면, 귀하의 여행 관련 소비와 전체 소비지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구분		사례수(명)	줄어든다	변화 없다	늘어난다	계
전체		(500)	8.3	63.3	28.4	100.0
성별	남성	(248)	12.3	49.8	37.8	100.0
	여성	(252)	4.3	76.5	19.2	100.0
연령	20대	(79)	2.8	83.0	14.2	100.0
	30대	(76)	9.7	45.9	44.4	100.0
	40대	(96)	14.8	43.3	41.9	100.0
	50대	(101)	6.0	65.9	28.1	100.0
	60대 이상	(148)	7.8	72.8	19.3	100.0
가구 소득	수도권	(256)	7.0	61.0	32.0	100.0
	충청권	(58)	13.5	71.7	14.7	100.0
	경상권	(131)	4.4	67.4	28.2	100.0
	전라권	(42)	22.7	62.4	14.9	100.0
	강원	(10)	4.0	23.0	73.0	100.0
	제주	(3)	0.0	61.2	38.8	100.0

구분		사례수(명)	줄어든다	변화 없다	늘어난다	계
전체		(500)	8.8	57.5	33.7	100.0
성별	남성	(248)	11.7	35.9	52.4	100.0
	여성	(252)	6.0	78.7	15.3	100.0
연령	20대	(79)	4.0	32.8	63.3	100.0
	30대	(76)	17.6	41.5	40.9	100.0
	40대	(96)	13.7	46.5	39.8	100.0
	50대	(101)	6.1	71.1	22.8	100.0
	60대 이상	(148)	5.6	76.7	17.7	100.0
가구 소득	수도권	(256)	9.7	45.2	45.1	100.0
	충청권	(58)	8.5	77.9	13.6	100.0
	경상권	(131)	4.0	73.0	23.0	100.0
	전라권	(42)	18.9	53.2	28.0	100.0
	강원	(10)	8.0	66.4	25.6	100.0
	제주	(3)	16.7	55.5	27.8	100.0

문9	귀하는 여행활동의 증가로 인해 과소비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편입니까?
----	---

구분		사례수 (명)	여행횟수를 줄인다	여행외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을 줄인다	여행시 소비지출을 줄인다	금융기관 대출을 늘린다	저축을 줄인다	계
전체		(500)	37.4	37.1	22.0	1.8	1.7	100.0
성별	남성	(248)	23.0	45.9	25.3	3.1	2.6	100.0
	여성	(252)	51.6	28.4	18.7	0.4	0.9	100.0
연령	20대	(79)	16.7	67.8	13.8	0.6	1.1	100.0
	30대	(76)	26.7	39.6	32.6	0.4	0.7	100.0
	40대	(96)	28.2	36.8	23.9	6.0	5.1	100.0
	50대	(101)	34.3	46.3	17.4	1.5	0.4	100.0
	60대 이상	(148)	62.1	13.1	22.9	0.5	1.3	100.0
가구 소득	수도권	(256)	33.4	45.6	15.9	2.7	2.5	100.0
	충청권	(58)	71.2	15.1	13.7	0.0	0.0	100.0
	경상권	(131)	40.6	34.5	23.7	0.9	0.3	100.0
	전라권	(42)	7.1	29.7	60.4	1.9	0.9	100.0
	강원	(10)	29.6	12.3	43.0	0.0	15.0	100.0
	제주	(3)	45.5	30.1	24.4	0.0	0.0	100.0

집필내역

연구책임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총괄(제1장~제6장)

공동연구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제5장 일부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3장 일부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김 대 관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21년 10월 15일

발 행 일 2021년 10월 15일

인 쇄 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83-6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21>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희수(2021),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21>

